朝鮮日報 夕刊 二十四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日中關係의調停 全然停頓된狀態

國府、北中特殊性을 絶對的으로否定 英蘇兩國과 提携코 對日牽制를開始

有田大使의 歸國報告極注目

【上海二十三日發電通】南京에서 蔣介石氏以下 國民政府要人과의 會見을終了하고 다시 二十二、三兩日 上海大使館에서 擧行한 總領事會議에 出席하야 各總領事로부터 管轄地方의 政情과 排日取締狀況等을 聽取한 有田大使는 二十三日午後四時 上海發列車로北上하야 歸國途上에 올낫다 有田大使는 南京에서 國民政府當局과의 會談結果 重要한點에 關하야 認識이 一致되지못한 點이잇다고言明하엿는데 右는 日中國交調整에 當하야 兩方의 對北中認識에 根本的相違가잇는것을 意味하는것이라고 解釋된다 聽聞하면 中國側은 有田大使에 對하야 日本은 北中에잇서 一切의 軍事行動을 中止하고 駐中全權大使는 南京에잇서 北中問題도 包含하야 折衝하지안흐면 圓滿한交涉의 進展은期하기 困難하다고 一決하엿다하는데 日滿中三國提携의 障害가될 北中의 特殊性을 絶對的으로 否定하엿다 그리고 中國側에서는 右와如한 對日强硬態度를取하는 一方英蘇兩國에 손을뻐처 日本牽制에 大活動을 開始하야 英國에對한 中南支借款鐵道의 敷設權附與、蘇聯과의間의 密約締結交涉進展等은 當該國側이 否定함에도 不拘하고 借款、情勢로 보아 모다 事實이라고 斷言할수잇다 有田大使는 天津、新京에잇서 現地陸軍首腦部와 會見하고 懇談後歸國하야 日中關係의 現情은 全然停頓狀態에 잇고 또 折衝의 企圖까지 解消되여잇는 情勢를報告하야 將次出發할 對中積極工作에 對하야 進言을試하리라고 觀測되는바 同大使의 歸國報告는 日中關係의 將來方向을 指示하리라하야 注目되여잇다

對伊制裁를解除안하면 對獨制裁에不參

伊墺匈間의共同戰線確立한 三國協定正式調印

【羅馬二十三日發同盟】伊太利代表무솔리니首相、墺太利代表쉬쉬니크首相、匈牙利代表괴베스首相의 專門委員을 交하지안코 二十一日以來 數次에 亘하야 協議를 遂한結果 新協定案을 締結하고 二十三日午後 右三國首相은 베네치아宮에서 羅馬協定案에 正式調印을 完了하엿다 調印式後 伊太利政府는 左와如한 콤뮤니케를發表하엿다

무솔리니、쉬쉬니크、괴베스三首相은 二十三日午後 베네치아宮에서 羅馬議定書에 調印을 終了하엿다 議定書正文은 二十五日에 發表될것이다 三國會談은 友好相互信賴의雰圍氣에 終始되엿다

伊墺匈三國政府는 新協定案에對하야 三國間의 政治的經濟的連帶關係를 强化하고獨立 불럭을 結成하야 中南歐洲에 覇制를確立하기를 期하고잇다 特히伊太利 政府가 聯盟의 制裁下에잇는 實情에鑑하야 三國政府의共同戰線을 確保하야 斷乎制裁案에 抗爭하기로 意見一致된것이라고 解釋된다 新協定案은 政治議定書及經濟議定書로 構成되엿는데 經濟議定書는 二部로分하여잇다고 推測되는바 그主要한條項은 左와如하다

一、伊墺匈三國政府는政治經濟의 分野에잇서 緊密한提携를策하고 特히政治的으로는 共同方針을 維持하고經濟의 分野에 잇서서는 相互間의 經濟關係促進을 期함

一、라인란드非武裝條項의 侵犯에 關連하야 聯盟理事會가 獨逸政府에 對하야 侵害國의 裁斷을 下하고 制裁案發動을 斷行할 境遇에도 伊太利政府에 對한 制裁案이 解除되지안는限 伊墺匈三國政府는 獨逸政府에 對하야 制裁案을 發動치아니함

一、伊墺匈三國政府는 墺太利의 政治的獨立及 領土保全에 協力하고新協定案에는 다뉴브流域 各國政府의 參加를 妨害치안음

最後의 項目은 墺太利 政府와 체코슬로바키아政府와의 接近을 圖할 意圖에서 나온것이라고 解釋되는데 伊太利政府當局은 制裁案을 解除치 안는限 如何한 政府의 參加나 承認치 안할 方針이라한다

專任文相 平生氏로正式決定

【東京電話同盟】廣田首相은 非常時對處와 重大關係를가진 國體明徵問題에 關聯하야 文相의 銓衡에對하여는 特히 留意하야 愼重人選中이든바 貴族院議員 平生釟三郎氏를 起用하기로 二十四日 正式決定하엿다

獨逸軍用機二臺 佛國境都市偵察

低空飛行敢行하야 地形偵察코寫眞撮影

佛國境守備隊大緊張

【스트라스부르그二十三日發同盟】獨逸空軍所屬 軍用機二臺는 二十三日 午前十一時頃 國境線을 突破하야 스트라스부르그市 上空에 나타나 霹然한 爆音과함께 地上約五十米의 低空飛行을 敢行하고 地形偵察과 寫眞을 撮影한後 即時 機首를돌려 國境方面에 歸還하엿다 그리고 同日午後五時三十分頃 스트라스부르그市 近郊 윈드호프村의 上空을 獨逸軍樂機一臺가 通過한事實이 잇는바 佛國國境守備隊當局은 頻繁한 越境에 異常한緊張을 못하여잇다

뭇솔리니伊首相 産業國有力說

議會廢止코職能代表로代位

파시스트的統制强化

【羅馬二十三日發電通】뭇솔리니 伊首相은 二十三日全國職能代表會議에 出席하야 憲法大改正、議會廢止 重要產業의 國有計畫을 發表하엿는데 特히 左와如히 力說하엿다

政府는 戰時에備하야 經濟的自給自足을 目的으로 産業統制를 더욱强固히하려 하는바이다 政府의 經濟政策은 一旦有事時에 備하야 이에備할方針下에 確立할것이다 伊太利는 若干의 原料品이 缺乏하여잇다 이事實이 곳伊太利가 植民地를 要求하는 根本的理由의 하나이다 余는 特히 職能代表會議에 對하야 諸先諸君이 伊太利領內의 모든 資源을 開發하야 伊太利로 하여금 外國品에 依存치 말고 國品만으로 依하야 資源을 잘 持續하는데 全力을 傾注하기를 期望한다 그리고 이때문에는 보담 以上의 鐵道의 電化를 圖하야 各地方의 資源開拓에 資할것이다 鐵道의 電化에 依하야 石炭의 輸入을 約四割乃至五割을 削減할것이다 戰爭이 果然 何時에發生할는지는 何人에게나 豫測不可能한 일이나 重要의 事物은 激烈히 進行하고잇다 各國은 바야흐로 大軍備政策을 取하고잇다 政府가 産業國有化의 決意를 固하게된 所以도 實로 各國이 如斯한政策을 取하기 때문이다

【羅馬二十三日發電通】뭇솔리니 伊首相은 全國職業代表會議에 出席하야 從來의 議會廢止를 包含한 憲法大改正을 宣言한後 다시左와如히 全國主要產業의 國有計畫을 發表하엿다 伊太利政府는 國防施設의 完備를 期하기爲하야 主要産業의 國有를 斷行할 方針이다 그리고 新職業議會의 正式開設時日은 未定이나 伊에兩國紛爭의 圓滿한 解決及 歐洲大陸政局의 發展如何에 係하야追後 決定될터이다

伊國大空軍 지市爆擊 全市가灰燼化!

【아디스아베바二十三日發同盟】伊太利空軍司令 라지將軍은 空軍의 精銳二十七臺를 引率하고 二十三日새벽 大擧南部戰線의要地 지지가市上空에 襲來하야 前後一時間二十分에 亘하야 大爆擊을 敢行하엿다 爆彈投下總量은 二千噸以上에 及하는바 市中의家屋은 全部粉碎되엿고 또 火災를 이르켜 全市를 灰燼에 歸케하엿다 犧牲者도만허 卽死十五名 負傷者八十三名을 내엿다 負傷者中에는 英國籍아라비아人數名이 석겨잇다

【아디스아베바二十三日發同盟】에디오피아政府發表=伊太利空軍의 爆擊으로 지지가市는 廢墟上 漢城에 歸하고 土人의家屋과 歐洲人의住宅을 燒燼하고 爆擊으로因하야 全部灰燼에 歸하엿다 負傷者의 精確한數字는 아직 判明되지안핫스나 擴大한數에 達할模樣이다

總督府의各會議豫定

總督府新年度劈頭의各會議는 特別議會의開會가 遲延되기때문에 今月初旬부터 順次開會하게되엿는데 廿四日 定例局長會議에서 左와如히 決定되엿다

知事會議=六月九日—十三日
警察部長會議=六月十五日—十七日
司法官會同=六月十八日—廿日
中樞院會議=六月廿三日—廿五日

人事·集會

▲宇垣總督=二十四日午後三時京城驛發大田出張

八面鋒

◇有吉이 有田으로 바귀어도 三原則만은 日本의根本方針으로 一定不變。

◇蔣介石을맛나고 張群을맛나도 그럴뜻 그럴뜻以外에 鮮明한 무엇을보기는困難。

◇大使時代의 實際檢討를 材料로 外相就任後의 有田外交가 可觀。

◇獨立國 獨逸의大總統 히틀러가 獨逸은 完全主權을 要求한다고 絶叫。

◇主權의標準은 라인랜드의實權 如何로써 判定한다는 말일인가。

◇世界平和新會議에 米國의參加는疑問이라는 報道가 정말事情에通한消息아닐가。

獨正式回答은 얼마동안留保

【伯林二十五日發同盟】歸國中인 립펜트로프特使는 二十四日伯林을 出發하야 倫敦에 向하기로 되엿는데 英佛白伊四國政府의 新로카르노協定에對한 正式回答은 暫時留保되여 來二十九日 總選擧가 終了되기까지 問題는 遲延되리라고觀測된다 右에關하야 外務當局은 二十三日 非公式으로 左와如히 말하엿다

립펜트로프氏는 아마 二十四日 倫敦에 赴할터인데 립펜트로프特使는 單純히 新로카르노案의 現在原則에 對하여는 獨逸政府는 不贊成한다는 旨를 通告하리라고 豫想된다 即 獨逸政府는 只今獨逸側의 對案을 提示하기를留保하고單純히 四國提案이 原則的으로 受諾不可能하다는旨를明示하는데끈치고 折衝을 끗내지안코 어데까지 將來를爲하야 門戶를 開放하면서 玆에暫時中斷한채로 將來로 미루게될모양이다 히틀러總統은 總選擧에서 獨逸國民의 百%의 支持를確保하고 다시 四國側에 對하야 斷乎한 裁斷을 提出할터이므로 獨逸政府가 積極的으로 對案을提示하기는 三月二十九日以後에될것이다

獨、非武裝地帶에 新要塞構築着手

암스텔담에達한情報

【암스텔담二十四日發同盟】獨逸政府는 로카르노會議協定案에對하야 아직回答을 發하지안코 陰險한 沈默을 繼續하고 잇는데 암스텔담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回答을 發하기前에 라인란드 非武裝地帶에 新要塞構築案에 着手하엿다고 傳한다 勞働團은 勿論 非武裝地帶에 入하고 豫後備將校도 急速動員되엿다고한다

外地人事移動에 宇垣總督은不動

臺灣總督、林南洋長官은更迭

廣田首相의人事政策

【東京電話電通】廣田內閣成立과 함께 植民地에對한 行政革新을 爲하야 人事刷新의소리가 政府部內에 이러나고잇는데 中川臺灣總督 林南洋長官等은 이미 話題에 올나잇다 即 中川總督은 廿三日 臺灣을 出發하야 東京으로向하엿는데 이것은 特別議會에 出席하기 爲함이라하나 同總督更迭의 前提가 아닌가하는 觀測이 이러나게되엿다 그리고 林南洋長官도 同樣의소래가잇는데 이것은 큰問題가아니다 그러나 宇垣朝鮮總督에關하여는 故齋藤內府가『朝鮮總督은 될수잇는대로 永久在任을 가지게할것으로 자조總督更迭할것이아니라』는생각을가지고잇섯슴에 또宇垣總督은 實績에잇서서나 그治績에잇서 明總督이라고 自他共認하고잇슴으로 岡田前首相도 宇垣總督의 地位에는 일즉이생각도 안하엿든일임으로 宇垣總督은 變動업슬모양이다

鮮滿拓殖創設

各方面의諒解成立

鮮滿拓殖會社創立에 關하여는渡東中인 田中外事課長이主로 中央各方面과 折衝하다가 二、二六事件으로因하야 一時停頓되엿스나 廣田內閣成立과함께 再次折衝을 거듭한結果 昨二十三日로서 關係方面全部의 諒解를엇게되여 거이 總督府原案대로創立의 具體的準備에 進出하게되엿다

聯盟理事會 二十四日로延期

【倫敦廿三日發電通】로카르노條約國의 通告에對한 獨逸의回答은 二十三日에 到着할터인데 아직未着임으로 今日開會豫定이든 聯盟理事會는 二十四日午後四時로 延期되엿다

英提案回答코저 獨首腦部會議

和協的으로應答形勢

【伯林廿三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브러숄라우로부터 歸還한後 립펜트로프特使、外相노이라ー트男以下 外務省首腦部를 招集하고 倫敦提案에對한 正式回答을 協議하고 잇는데 히틀러總統과個人的關係가 깁흔駐獨英國大使필립스氏와 如한이로 現在의情勢로는 倫敦提案은 그대로 受諾하지안코면 안된다고 强硬히主張하야 二十三日 노이라ー트外相과 協議한結果 히틀러總統의 回答은 和協的內容을 가진것이라고觀測된다 히틀러總統은 二十四日夜 伯林의 도이취랜드에서 第七回의 總選擧演說을 試할터인데 或은 若干倫敦提案에 言及하리라고 各方面에서 注目하고잇다

新職業大公開
世八 大特價아하價에
壹圓五拾錢也에 보내드립니다
速成醬油製造法實地傳授書 全一冊
速成洗濯石鹼製造法傳授書 全一冊
簡易味噌製造法(日本된장) 全一冊
速成酢の素製造法實地傳授書 全一冊
速成ソース製造法實地傳授書 全一冊
速成淸酢製造法實地傳授書 全一冊
アミノ酸味のもと速成製造法實地傳授書 全一冊
水白粉 香水 白色液 クリーム 粉白粉 打粉 ポスト 洗粉 簡易製造法傳授書 全一冊
近刊豫告
●地方駐在男女有給調查通信員募集
發賣元 合名會社 朝鮮產業開發社 電話光化門三一九番 振替口座京城二三四一番

朝鮮劇場
三月二十五日부터五日間 正午十二時부터
海國의榮譽
참다스公主

●記憶力을增進하는 はれやか(하레야가)●

臺灣苧麻紡績株式會社製品 水牛印苧麻絲、西鮮代理店
平元線順川驛前
紡績麻絲 織機用品 卸商 順榮商店

당채색 德世洋行 京城府鍾路三丁目

下痢 腹痛의 權威劑 柏村博士創製 ヘルプ(헬프)
本舖 東京日本橋 津村敬天堂

고초가루 元賣都製造 興信製粉所 釜山府富平町三丁目七 電話一八四五番

文部省認可 興文中學校 生徒募集 第一學年 壹百名 第二學年以上 若干名 廣島縣吳市平原町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 電本五三六〇番

實踐簿記專修學院 第四七回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 電本五三六〇番

日本大學商經學科 大學部 專門部

寧邊崇德學校男女生徒募集

京城女子醫學講習所生徒募集 京城貫鐵洞

東洋自動車學校生徒募集 京城府武橋町

財團法人京城實業學院設立 漢城商業學校生徒募集

中央館 每日晝夜二回興行 戀は終りぬ 曉の麗人

萌動

中等校新設方針은 實業校中心主義
定例局長會議서政務總監이重大指示
公私校新設에積極的統制

총독부에서는 이십사일의 정례 국장회의에서 여러가지 중대한 금후행정방침에 대한협의가 잇섯는데 금후의교육행정의 쇄신과 통제책에 대하야 특히 주목할만한 방침에대하야 금정전(今井田) 정무총감의 지시가잇섯다 즉중등교육기관의 통제책에대하야 이기관의 신설에 재래에는자유주의적 립장에서 일반민중의 요망을 드른바도 잇지만 금후는그요망의 사비를 잘판단하야 자유주의적 립장에서 중등교육기관의 신설에대한 근본방책을 확립하겟다고하엿다 이것은 오는륙월 하순에 신설될 중등교육 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중등교육회장안과 중등교육의 방침전환 즉보통교육중심주의로부터 실업교육중심주의로 전환하게될것을 말한것이며 도광전(廣田)신내각의 서정(庶政)개혁과 통제주의정책에 조선서도 순응하려는것이라한다 따라서 금후조선안의 중등학교설립에대하야는 관공립뿐아니라 사립학교의신설에도 실업학교의증설을 도모케할방침으로 이와가튼정책이 오는중등교육조사회의의 중등교육회중안에 어떠케 반영되야 결정될는지 주목된다

暗黑街의所見表
昨年度犯罪三萬五千件
竊盜가斷然首位、殺人은廿七件
京畿道內犯罪統計

경긔도 형사과에서 작성한통계표를보면 소화십년도 일년동안 경긔도내에서 발생된 범죄총수는살인, 방화, 강도, 절도, 사긔 횡령등 형법(刑法)범죄자가 이만이천오백륙십륙명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위반, 출판법(出版法)위반, 삼림법위반등 특별법(特別法)범죄자가일만삼천삼백삼십오명으로 모다삼만오천구백한명이며 그중검거된수는 형법위반자가 이만륙백이명 특별법위반자가 일만삼천삼백칠십오명으로 모다 삼만삼천구백칠십칠명이다 범죄건수중 가장만흔것은절도일만사천사백팔십사건이고가장적은것은 살인이십칠건 상해치사(傷害致死)이십팔건 강도오십건등으로범죄총건수 삼만오천구백일건을 경긔도전이구 이백사십오만일천칠백팔십칠명에 비교하면 륙십팔명중에한사람식이 범죄를한셈이다

草溪市場整理案 面協議會서可決

【草溪支局特電】 경남합천군초계면(陜川郡草溪面)제사십삼회 면협의회 석상에서 율동안으로팔천원의 공비를드리여 여러해면민들이 갈망하고잇든 시장정리안(市場整理案)이 만장일치로가결되엿다 그러나 시장위치문제로 의론이 구구해저서 결국그결정을보지못하고 이십오일까지 보류하기로하고 폐회할때쯤되여 갑작이 동부(東部)와 중앙(中央)두파로 갈리여 쟁탈전을 시작하엿다 그래서 중앙을 주장하는 네명의 의원들은 이십삼일 합천군청으로 진정코저 떠낫는데 군의 처리는 주목된다

거스름돈詐欺流行

최근 시내각처에 거스름돈사과한이 횡행하고잇든중 이십이일오후 아홉시경에 서내서대문서(西大門署)에 그범인이 채포되엿다 그는시내 홍파동(紅杷洞)오번지의오호 금강(金剛)려관에 묵고잇는 김두표(金斗杓)(三〇)라는사람으로 이날오후 여덟시경에 시내교남동(橋南洞)일백삼번지 금계(金鷄) 상점에서 삼십사원어치 잡화를사고 집에가서 돈을주러이니 거스도사원을가지고 따라오라고하야 상점주인을 데리고 이리돌고 저리빠지다가 다라나랴는것을 붓잡아서 경찰에 테리고 간것인데 취조에 따라 여죄가 만흘뜻하다고 한다。

關釜連絡船에 金剛丸登場
六千餘噸最新豪華船

【東京電話同盟】 철도성(鐵道省)에서 벌서부터 관부련락선(關釜聯絡船)으로 사용하고저 장기(長崎)삼릉조선소(三菱造船所)에 주문하고잇든 배한척은 이지음 거지반 완성되게되엿슴으로 오는 오월이십사일진수식(進水式)을 거행하기로 되엿는데 여섯살엇 전전(前田)철도대신이 조선의명산 금강산(金剛山)의일홈을 따서『금강환』(金剛丸)이라고 명명하거로되엿다 이익금강환은 총톤수 륙천칠백오십륙톤으로 그길이지 백삼십삼척미돌에 그폭이 십칠척미돌로 정원(定員)은 삼등일천삼백명 삼등침대이백명, 이등정원이백이십명에 이등침대 팔십대, 일등정원사십륙명등으로 특히이배의 자랑거리는각실마다 방화벽(防火壁)이잇는데다가 배밋창은전부 방수벽(防水壁)을 맨드러서 일부가손상될지라도 침몰할 위험이절코업다는데 이런설비를한것은 이금강환이 세계에서처음되는것이라한다.

그리고 서속(時速)은 최고이십삼노트로 당분간 『떠이아그람』의 관계로 하관(下關)──부산(釜山)사이를 여덟시간에 다닐터이나 얼마잇다가실현될 동경(東京)──경성(京城)사이 하롱동안편리하게 될때에는 그쾌속력이 참으로 발휘될것이라한다.

他殺嫌疑濃厚한 石橋下에怪嬰兒屍體
鍾路署犯人을猛搜査

이십사일아츰 여덟시쯤되여 서내소격동(昭格洞)의전병원(醫專病院)압다리미테 나흔지 단하로도 채못되여보이는 갓난아이의 시체가 태ㅅ줄이 달린채로 검정빗 비단치마에 싸혀서 내버려잇는것을 지나가든 사람이발견하고 곳소관종로서에 알리여왓스므로 그서사법계에서는 영정(永田)주임이 현장에 달려가 립검한결과 타살한 혐의가 농후한것을 발견하엿다고한다

그래서 그서에서는 지금 이사실을 비밀에부치고 범인붓잡기에 맹렬한 활동을 하는중인데 그치마검으로 보아 여학생이나『카페』가튼잇는 여자의 소위로 주정된다한다

仁川阜頭倉庫에서 作業人夫四名重傷

【仁川】 지난이십일야구상회(野口商會)창고에서 작업중의 인부사명이 철통에치여 중상하엿다함은 귀보한바와갓거니와 지난이십삼일 오후구시 목뇌(牧賴)병원에서 중상자중 강원도김화(金化)출생의 김창환(金昌煥)(三七)만은 마침내절명되고 말엇다 이에소속로동조(勞動組)인 복도조(福島組)에서는 치료비를부담하고 시체운반비가 업서서 그형 김두환(金斗煥)이가 시체를 인수하얏스나 운반할도리가업서 맛침내 보안계에서 영신조(永信組)조장 김정곤(金貞坤)씨를통하야시체운반비를물케하리라고

尹炳吉은公判廻附

경기도 경찰부에서 지난 십여일에 출판법위반의 혐의로경서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보내여 향천(香川)검사의 담임으로 취조중이든 윤병길(尹炳吉)이 이십삼일에 치안유지법위반으로 기소하야 그법원합의부공판으로 넘겻다 공판기일은 오는 삽십일일로 경정하엿다

金九部下인靑年兩名 今朝仁川에護送
上海領警에被捉되여

【仁川支局電話】 어십사일아츰열곱시 상해(上海)로부터 입항한 『평안환』(平安丸)에는 상해일본령사관 경찰서로부터 붓잡어보내김구(金九)부하인 구관학교훈련생리공석(李公錫)(二九)、송영을(宋永乙)두명이 도착되엿는데오후두시십사분차로 경찰부로 압송햇다

運動競技

中央基靑主催、本社後援 第九回全朝鮮卓球大會 來四月二日에開催

우리卓球界의 年中盛事!第九回全朝鮮男子卓球選手權大會는中央基督敎青年會主催와 本社後援아래 來四月二日午前十一時부터 鍾路靑年會運動室에서 열리게되엿다 參加申請期는 四月二日午後四時까지이며 住所 氏名 年齡 職業 所屬團體를明記하야中央基靑體育部로 申請하기를바란다 (參加金十錢)

올림픽籠球規定

第十一回國際올림픽籠球는 今夏伯林에서 八月부터 開催할터인데 諸般規定은 다음과갓다 ▲申請期限=申請은 六月廿日까지어며 멤버提出은 七月十八日까지 (追加變更不許) ▲出場人員=一開國一팀十四名以內 ▲規定=國際聯盟制定에 依하야行함 但解釋에 不審한點이잇슬때는 英語版의 規則書를 決定的으로함 ▲試合方式=『트나멘트』에 依하야行함 A、參加팀이 十六팀 以下일때에는 第一日一回戰 第二日一戰敗者復活戰 第三日 二回戰 第四日三回戰 第五日準決勝戰 第六日決勝戰及三位決定戰 B、參加팀이十七팀以上될때…第一日一回戰 第二日一回戰敗者復活戰 第三日二回戰 第四日二回戰敗者復活戰 第五日三回戰 第六日四回戰 第七日準決勝戰 第八日決勝戰及三位決定戰

東京高師柔道來征

東京高等師範柔道部一行 十四名(五段五名, 四段十名)은 滿洲遠征을 마치고 도라가는길에 四月十日午前七時二十五分 京城驛着列車로 來京하야 朝鮮팀과 一戰을交하고 十一日午前十時五十分發車로 歸京할터이라한다

體協과關係團體 今年度競技日程 (昨日夕刊續)

◇排球			
京城中等리ー그	五月下旬	支部	鐵道
京城實業	五月下旬	支部	龍中、二高
京城女子中等리ー그	六月上旬	支部	各女學校
全朝鮮少年大會	六月下旬	支部	鐵道
同少女大會	七月下旬	支部	鐵道
同選手權	七月下旬	支部	京運
一流女子招聘	八月上旬	協會	京運
男子選手權	九月下旬	朝新	京運
神宮地方豫選	九月下旬	支部	各地方
全日本	十月上旬	協會	京運
選女子리ー그	十月上旬	朝新	京運
朝鮮神宮	十月中旬	協會	京運
◇軟式庭球			
全日本軍招聘	六月中	聯球	京運
全朝鮮選手權	七月中	同	同上
◇卓球			
Q、B選手權	未定	同	同上
一般學生對抗	未定	同	同上
全朝鮮實業	四月中旬	協會	未定
全朝鮮學生	五月上旬	學聯	未定
全朝鮮職員	五月上旬	協會	未定
全朝鮮新人	五月中旬	鷄林	YMCA
實業團·學生對抗	五月下旬	京運商會	未定
全日本對抗市部豫選	六月下旬	協會	未定
男女選手權	八月上旬	協會	未定
神宮豫選	九月上旬	體協	未定
女子리ー그	十月上旬	朝新	未定
神宮及選手權	十月中旬	體協	未定
日本選手權派遣	十一月上旬	體協	未定
實業團	十一月上旬	協會	未定
學生聯盟	十一月中旬	京運商	未定
男女老童	十一月中旬	同上	未定
實業學生對抗	十一月中旬	同上	未定
全日本學生對抗派遣	一月上旬	協會	未定
男女老童	二月中旬	京運商	未定
全日本學生招聘	未定	協會	未定

世界自轉車大會 瑞西國에서開催

全世界自轉車選手權大會는 來八月廿八日부터 九月六日까지 十日間 瑞西에서開催하게되엿다會場은『쥬ー릿히』에잇는『에ー르큰』自轉車競走場에서 行할터이며 道路競走마는『빠ー큰』市周圍의自動車道路를 使用할터이다 UCI規約에依한 世界選手權은 다음과가튼 五種目에分類되여잇다 短距離(約五百米)世界職業選手權及同非職業選手權 ▲長距離(約百키로) 世界職業選手權(以上은 自轉車競走場에서擧行하는것) ▲道路競走(二百키로)世界職業選手權及同非職業選手權

崎嶇·그女子一生
太陽업는거리에卅年間流離
警察에呼訴한눈물의口演集

무심히 내여노흔 한발자욱 때무려진거룸이 그녀자의 일생을눈물의 주인공으로 만든러버린 이야기가 잇다

이십삼일밤 시내본정서(本町署)에 젊은녀자가 하로밤 잠자리를 구하여달라고 애원하는장면이 잇섯는데 그는 본적을지외고양군 은평면(高陽郡恩平面)에두고 주소가 일정치못한 리봉달(李鳳達)(三七)이란 녀자인데 생후사흘만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이고 홀아버지의 손으로 심봉사 다름업시 이웃집을 다니면서 자라나 열세살먹든해에 가난한 살림을 등에지고 아버지를모시고 고향인경상북도고령군(慶北高靈郡)으로 나려간 이듬해아버지조차 마저리별을하고 문자그대로 천해고아가되엿다 이집저집 심부름을 하여가면서 겨우 련명을하든중 열아홉살되는해봄 마을젊은 사나히와 남부럽지안흔사랑의살림을하게 가리고향을떠나 서울로올러와 살림자리를구하엿스나 뜻대로 되지안혀승으로 그들은 보따리를 펴서대련(大連)으로 갓스나 역시생활곤란은 공둥의 뒤를따라다니게되엿다 이레눈동에 변심하게된 그의 남편은 그를청루에다가 사백오십원으로 파라먹고 그만종적을 감추어버려 눈물속에서 사변바이라는 긴세월에 마음없는 생활을하면서 겨우 빗을갑고 재생을 펴하야 천진(天津)으로 발을옴겨 그곳에서 역자사를 하면서 원수가튼 돈버리에 정신전령을다하야 푸른모돈도이 약상사백원이되엿다한다 그러나한번 사랑의 여신에게 미움을바든 그에게는 역시래양업는 거리가 기다리고 잇섯슬분이엿다

중국사람의 꾀임을바든 그는 재차인흔 시장에서 헤매이다가 작년십이월 그곳을 가만히 탈출하야 청도(青島)에 와서 그날그날 사러가든중 역경에처할수로 몰라는향수(鄕愁)는 정청디하야 십이일천청도려사관(青島領事館)의 주선으로 인천(仁川)에 송환되여 바로작일 경성(京城)으로 올러왓스나 아충 점심을먹지못한그는 할수업시 전기와가티 본정서에 애원하엿다

非常時色또한개
今年은勞働祭不許可

【東京電話同盟】 제이세칠회『메-데-』에 대하야 내무성(內務省)에서는 금번은 마종 특별의회(特別議會)의 소집일과 부다치고 더욱이、여론사건직후의 세정에도 비추어 취체방침의 견지에서 동경으로는 전국적으로 『메데-』는 중지 식히고 마일노동단체측에서 억지로 노동제를개최할려고하면, 오월 일일후 적당한 긔회에 거행할 의향이라한다 이에 대하야 노동단체측에서는 오월일일에 거행못하면 하등의미업는 것임으로금년도메데-는 전연거행안하기로하던지 혹은 서일이느저서라도거행할런지 아축 미정이나 금년도메데-중지설이 로동단체간에도 상당히 의론되고잇다

物理治療團束
京畿道警察部에서

근래경긔도내에는 전긔치료술(電氣治療術)이니『라듐』치료술이니지압술(指壓術)이니과합(氣合)치료술이니하는치료법이 흥사하비뒤에 대순나온듯이 생기여 거리거리에 치료소를 벌리고 병자를 취급하야 의사와가튼 행위를하고잇스나 아모것도 이들 치료술을 취체할 법규가업서서 그중에는 공연히 혜위의 광고를하고 알는사람의 약한심리를 리용하야 치료비만 낙는 치료소도 잇스나 이것을 취체하기가 자못 곤난함에 비추어 경긔도 위생과에서는 보안과와 협의하야 이들 치료술을 취체할법규를 제정코저 방금 그내용을조사중이라한다

人道橋上에 自殺哲學講座
失戀靑年의換腸劇

【京城】 오뇌와 번민에사로잡힌 청춘남녀들의 자살장이 되여잇는 한강 철교우에서 오고가는 사람들을 붓잡아노코 자살 철학(自殺哲學)에 대하야 일장연설을 토하며 여러사람들에게 자살을 권고한 젊은사나히가잇섯다 이십삼일오후다섯시경 철교공사로 복잡한 한강교제삼렉이닝』에서 본적을 전남병영(全南兵營)에두고 동경일본대학에다니다가 중도에퇴학햇다는 박춘식(朴春植)(二七)이란 청년이 엇던녀자와련애를하다가 실련을당하고 정신에이상이생겨 전기와가든넌센스한막을 열엇든바 이로말미아마 한동안 언도교우는 잡답을이루웟섯다

列車에轢死

이십삼일 오후아홉시 오십오분 함경선(咸鏡線)홍상역(興上驛)에서 청진(淸津)을 떠나 서울로 향하여오든 제오백사렬차가 떠나서 오、륙십미돌』가량 진행해 오든중 승객사오명아뛰어 나리려하므로 차장은곳 정거를 하도록 했스나 채 밋치지 못하까닭에 그중 한명이『홈』과 렬차 중간에끼여 머리와얼굴을 몹시 부닥드려 즉사하고 말엇는데 이는 함주군홍지면 송흥리(咸州郡紅池面松興里)리림백(李林白)(三六)으로판명되엿다 한다

天氣豫報

概況 七五八머리의低氣壓은 日本海北部를 北東으로 進行中이며 高氣壓은 北中國으로부터 朝鮮에 퍼지고잇다 滿洲、朝鮮、日本內地等은 日氣가 조호며 朝鮮半島는 北西風이 조금强하고 氣溫은 昨朝보다 四度內外내렷다

豫報 今夜京城地方은맑으며 明日도갓다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九度六 最低 零度三
今朝最低 零下三度六
今日正午 二度一分

本人의實印 (水晶四角形)을 昭和拾壹年三月二十日上南面前에서 紛失하온바 其後拾得者詐欺에地方 金位는見欺치마시옵기바라나이다 昌原郡上南面退村里 安昌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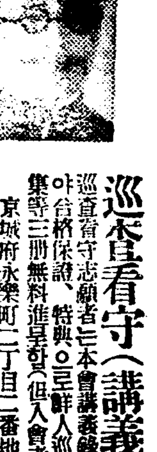
山羊乳 朝鮮配達 乳山羊分讓 明本山羊牧場

自轉車分問屋直賣 信用重視 特典付 進呈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二ノ六 一美商店

新入會員大募集
新春特典 比際普通科新入生에게는特典으로 其次號一冊을無代로配付하며 且兩科를通하야 誠實繼續者에게는 各其學年末에 相當한講義錄一冊을無代贈與하고 入會金五十錢도半減함
高等普通學科講義 普通學校卒業者 五·六學年
高等科 普通科 學則附內容見本請求卽時無代進呈
十二冊 一冊 五十錢 一個年 卒業 速修(隨意)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 電話(光)一八八四番 振替京城八一八九五番
本會의特徵 開講期日 每月 刊行部數 每月 無代進呈
우리朝鮮人本位의唯一한中等講義錄이며 朝鮮語、漢文學科가잇는것과 他講義錄에比하야會費도 거의半額임을注意하라

● 頭痛에 はれやか (하레야가) ¥.30 ¥.50 ¥1.00 ●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鮮人巡査試驗問題集等三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電本(2)三〇三〇番 (規則書卽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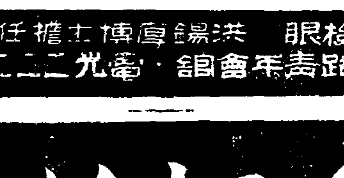

當選謝禮 今般全羅北道會議員補缺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熱誠한聲援下에當選의榮光을蒙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昭和十一年三月二十二日 金堤邑 金昌鎬 白

東光醫院 (各科分担) 內科 外科 花柳病科 皮膚病科 X光線科 血液檢査 小便檢査 喀痰檢査 糞便無料檢査 京城貫鐵洞二八四 電話光四〇一 大廣橋(平和商會앞)

野談
壓倒的人氣의 四月號發賣
特別讀物 韓末暴露秘記 尹孝定 今年七十九歲의翁이直接보고드고겪은驚愕할內幕의暴露記。本社에서出版權을獲得 京城鍾路二丁目 振替京城一八三八 野談社
此號執筆家 李光洙・庚秋尙・鄭寅杓・金泰洽・金伯岳・金岸曙・金東仁・其他 二百頁 六個月一圓五十錢 一個月二十錢 一年二圓卅錢 支社大募集

性器强大靈藥 瑞廉士大醫生新劑 清導補腎丸 二週分三圓 四週分五圓五十錢 六週分八圓 (先金送料自擔) 男子生殖器短小○早漏○夢泄○遺精陽萎不起等一般性慾障碍에는 說明書進呈 滿洲國安東縣安東郵局私書函第六號(中興街四〇)振替口座京城一三〇三八番 滿蒙特産物商會

人造絹端切競賣(인조견자투리경매) 左와如히人造絹平綢、文化絹、高等文化絹等二等品자투리를競爭入札하겟사읍니다 入札者는保證金五十圓持參할事 競賣期日 三月廿九日至四月二日 取引高 一口一百圓以上 京義線安養驛前 朝鮮織物株式會社


醫學堂眼鏡店 檢眼 無料 檢眼 洪錫厚博士擔任 京城鍾路壽松年會館 電話光二二二八番 型錄進呈 主任 [illegible]秉學

恩給 長期低利 確實有利 其他比較的最有利하게融通함 特色은照會回答 京城府授恩洞一六〇 鄭商會

代金全額後拂 道師秘方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特製一劑十圓
●藥效가 廣告와다르면 送金치마시요
●藥先送 代金全額後拂이니藥効가偉大、最極上、確實함은不問可知
●詳細規則三月二十一日朝鮮日報平和堂廣告를보서요
京城堅志洞 平和堂 振替五五六

봄消息은快然한レート의化粧美에서

그대의姿態야말로봄을부르는향깃한꼿

呼春하는花의丹粧

봄表情의化粧

바른것가치뵈지안코、自然스러운봄化粧의順序는……

一、낫(顏)씨슨뒤에レートクレーム를바르고輕하게맛싸ー저

二、그다음에レート粉白粉을파루로차분차분두들린다음에뭉치지안케바르고

三、レート연지를엷게어설푸시健康色으로발너두시오

四、最後에는レート眉墨을그리고レート입술연지를바르면、이것으로봄表情化粧은다됨니다

스마ー트한近代色四種
肌色・濃肌色・오클・白色
粉五五전・水五〇전

東京・平尾贊平商店

レート粉白粉
레ー도

일만흔봄마지 우선겨우사리정리

빨것은빨고 챙길것은챙겨서 오는겨울에또입도록

아모리 멧십년만에 처음 보는 괴후(乖候)라도 차차로 두려워지는 해ㅅ볏과 따뜻해지는 바람을막지 못하고 맙니다。이제는 헐수할수 업다고 겨울도하직인사를 고하는 모양이니 겨울에입든 옷가지를떨고 만지어 간수하는등 안악네의사무도 자연히 바뿌지 안흘수 업습니다。함부로 너허두엇다가는 오는겨울에 꺼내어 입을때 곰팽이가피고 때가절어 어입지 못하게 됩니다。다소 귀찬흐시더라도 손질할것손질하고 매만질것 매만지지안하서는 안 됩니다。

털로맨든것

굼서 몬지를 잘 떱니다 그다음 틈밥 씻어 말린것을 휘발유(揮發油)에 적시어 그우으로 쪽 펴노하둡니다。그러케 멧번이고 되푸리합니다。그런뒤 방충지(防虫紙)가 잇스면 거긔 싸고 그럿치 안 하면 그대로 습긔업는 상자안에 다가 방충제(防虫劑)또는 방습제(防濕劑)에 너허둡니다 미들만한 그점문의 상점이 잇거든 애초부터 맛기어 두시는것도 무방합니다。

털실로짠것

그중에도 쉐타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장갑가튼것은 무척 더러웟슬것이라 밧줏이 빨아서 두어야 합니다。미지근한 물에다가 세탁소다를 좀 진하게 풀어서 잡거두엇다가 흔들어 빠는데 거긔서도 아조 몸시 더러운것은 말셀비누를 칠해서 슬슬 문질러 빱니다。물이 더러워지면 멧번이고 갈아서 때를 쏙뺍니다。그래가지고 맨나종엔조산(醋酸)을 탄미온수(微溫水)에다 흔들어서 착곡착곡 개노코위로부터 눌려서 물을 뺍습니다。줄지 안토록 주의해서 말린뒤 꼼게 물뿜어서다듬질을 솔쩍해가지고 아까말한 그방법대로 잘 간수해 두기로 합니다。

양복등속

첫재주머니를 뒤집어서 몬지 담배부시럭이를 말짱하니 떨어냅니다。더러운것은 고속만 따로 세탁비누에 빨아놓습니다。둘째 해볏 조혼날십분이나 십오분쯤 쪼이어 가지고 자미대가튼것으로 떱니다。양복 가음은 다른것과 달러 몬지를 빨아드리는데 그것을 잘 떨지 안코 두엇다가는 그양복을 쉬 상하게 됩니다。셋재 풀고로 솔질을 합니다。솔은 털이길고 부드러운것록 조흡니다。넷재휘발유를 탈지면(脫脂綿)이나 풀솜에 무처어서 깃 수구 주머니단등 더러운데를 문질러 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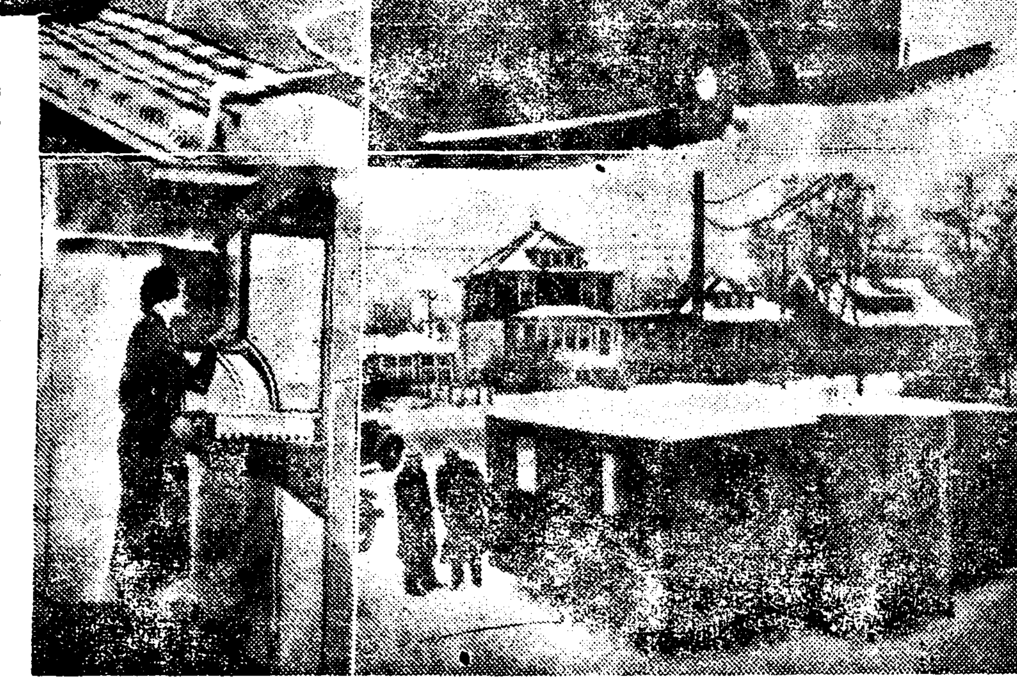
그것을 빨때 미트로 쫑그업는 새사흡처 대어서 때를 빨아드리게 합니다。그리고 장건건이의 얼룩얼룩 미온수를 흡처에 축해서 다지도록 작구 지우고 흙이 무든것은 솔로 떨고 나사 떱니다。그런뒤 다시 한번 해볏에 쪼이어 다름질을합니다。바지의 금은 똑바로 내어 두어야 합니다。축접다름이를 대어 번적번적할것은 따른것을 대고 해야 합니다。그다음 신문지를 아래 깔고 납헤링이나 장뇌나 한께 너허서 싸둡니다 생철 상자가 제일 조흡니다。

에기네양복

에기네 양복은 어른 양복보담도 더 더러울만틈 그대로는 안됩니다。해볏에쪼이어 솔침까지 족 한뒤 다시미온수에다가 암모니아를 멧방울떨어드리어가지고 솔에 무치어 전부 문지릅니다。정심히 더러운데는 알콜을 암모니아 휘발유를 가튼량으로 석거가지고 솔에 무치어문지릅니다。그런뒤 조산울타서 또다시 솔에 무치어가지고 한번 문지릅니다。그것을 말리어서 두는 방법은 어른양복과 갓습니다。

세루의복

그역시 몬지를 털고 솔로 슬고 수구가튼데 더러운것을 휘발유로 문지릅니다。그래서는 착곡착곡 개어서 히헌갑에 싸서 방충제 방부제등과한께 너허둡니다



〝이동식주택〟

이동식대주―자동차로끌고다

널수잇는집이 전에도 잇섯스나 척척접엇다 폇다할수잇는것은 업섯습니다 그런대 사진에보히는 이집을 보십시요 재집엇시 생방으로 도라다니는사람이 보아서는 칭찬할리 되게되엇습니다『우상』집을 이러케접어서 자동차로 가고싶흔곳을 가거든요。『우하』목적지에 도달해서는 척 허니 벌립니다(서울의 이삼천원짜리집 부럽잔습니다)『좌상』그러면 그안에 침대도 노혀잇고 (더구나 내외분이 주무실『따불베드』『좌하』음식맨드는 부억찬ㅅ간에 까스설비까지 잇스니 이만하면 살림사리하기에 짬찌지안습니까?

귀스병이잇스면 공부에도악영향

목에멍우리잇는아이들 귀스병잘나는아이이지요

귀스병에는 정녕전색(耳管狹窄) 고막이상(鼓膜異常)중이염(中耳炎) 고막천공(鼓膜穿孔)등이잇습니다 이러한 귀에병이잇는사람은 이성주의불능증(耳性注意不能症)이라고해서 청력장애가 되기 때문에 반사성신경증(反射性神經症)을 이르켜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기억력도감퇴가되고 따라서 학업성적에 나쁜영향을 미치게되는것입니다。

◇

례를드러말하자면 고막이 탈난병가운데는 만성중이카타르(慢性中耳加答兒)、또는 구씨관카타르(歐氏管加答兒)가튼병이 대단히 만습니다 이러한병들은 모다 소리를 잘못듯고 귀가울리고、귀속에무엇이 맥힌듯이 거북하게되며、나즌소리나 시게의 추소리족 데꺽데꺽하는 소리를 못듯게되고 선생의하는말도 무슨소리인지 잘못 아라듯게되는일이 만습니다 이것은 구씨관통기법(歐氏管通氣法)이라든지 고막맛사ー지가튼것을해서 한결낫게될수잇습니다。

◇

중이염(中耳炎)에도 이롯(耳漏)란는것은 고롬이 귀에서 흘을흐르는것인데 말하자면 아주만성이 되것이니까 꾸준히멧달멧해가 걸리든지 마옹노코 치료치안허서는 안 됩니다

◇

만성중이염은 걱기 또는 성홍열(猩紅熱)、홍역등의급성전염병에 걸렷슬경우에 도처서 심하게되며 엇던경우에는 대단한 합병증까지 생기게 되는수가 잇습니다 정내전색(정맥전색)(의분필이상)으로 말미아마 귀지가귀속에 꽉차는병인데 다단한귀지가 차는사람도잇슴니다 이병에는 어느편을 막론하고 귀개로 함부로 긁어내면 점점더 악화합니다 그럼으로 귀지를 추축히하는 약가령『오시푸』가튼것으로 하로에 멧번식 닥거내면 대개는곳 나어버립니다

권병은 체격이 조흔아이들에게 별로업습니다 체질이 조치못한아이 특히 림파성체질(淋巴性體質)이라고해서 목에 멍울멍울한것이 만흔아이 혹은 삼출성체질(滲出性體質)이라고해서 살이 푸석푸석하고 부스럼잘돋는아이、이런아이들에 만히 걸리는것이니 가정에서 이을 주의점은 하십시요

젓먹이애기에게만흔 滲出性素質(삼출성소질)

부스럼●헌데가잘생긴다

『혼합영양』으로치료하는법

투실투실하게 살진애기로서 생후사오개월쯤되어서부터 머리에 부스럼이나기도하고 얼굴에버짐이나서 딱쟁이가안고 또기저귀를 조곰만잘못채워도 살이벌거케시치어 헌데기되고 세수를시킨다든지 목욕을시키고나서 수건으로 물끼만안씃처도 목아나 겨드랑、삿사이가 잘짓무르게되고 또 조곰마치워도 금방 감기를들고 코를흘리고 하는 애기들ー이런체질을 가진애기는 삼출성소질(滲出性素質)이라고해서、갓나면서부터 피부가 약하고、습진이나 헌데가 잘나는 체질입니다 이체질에 살이찌는편과 박작마른편 두가지가잇습니다 살이찌는편은 비만성(肥滿性)이라고하야 근육(筋肉)이 단단치못하고 호물호물하게살만 찌편이며 박작마른편은 요수성(羸瘦性)이라고하야 약한 것을 먹이고 주의를해도 살이안찌고 계중이늘지안는편입니다。

◇―◇

어느편을 물론하고 얼골이나 머리에 부스럼이나서 잘낫지안는다든지 감기를 자조든다든지 하면 부모네들은 흔히 깜작놀라 태독(胎毒)이아닌가하고 이약을 먹인다、저약을 쓴다、침을 마친다하고 야단법석을하는분이잇습니다。그러나 태독이라는것은 선천매독(先天黴毒)이며 삼출성체질과는 전혀다른것이무로 아모리 약을써도 나을까닭이업습니다。약을쓰고 세상업는짓을해도 안나으니까 태독이깁히드럿다고만생각하시는것은 잘못입니다。

◇―◇

그럼 삼출성소질을 엇더케하면 고칠수가잇슬까 ―비만성즉살이찌는 편의 삼출성체질의경우에는 첫재 어머니의젓을 규칙적으로먹이고 애기가 삼사개월되거든 어머니의젓대신에 한두번씩 탈지유(脫脂乳)나 미음을 먹여봅니다。이것은 즉지방(脂肪)이 적은 혼합영양(混合榮養)을 주어보는것입니다。또 마르는편의 애기는 어머니의젓을 그치고 유모를대어본다든지 어머니의 젓도먹이고、우유도먹이고、미음도먹이고 하드시 혼합영양을 역시 주어보십시요 살찌편이고 마르편이고간에 될수잇는대로 속히 어머니의 젓을떼게하고 봄죽이라든 싱음조나 감자죽을 먹여는것이 조습니다 만약처음부터 어머니의젓을못먹고 우유로만자라는애기 즉인공영양으로 기르는애기에게는 유모를 대이면곳그체질이나어집니다 대개 이런식으로 혼합영양이거나 유모를대거나 하는외에는 달리체질을개조할 방법이업습니다 그렁으로 차차이러케 지내서 어린애기가 돌이지나 밥만먹게되면 자연히 씨슨듯이낫는수가 만습니다。

◇―◇

이 삼출성소질이라는것외에 또 신경성소질(神經性素質)이라는소질을가진애기가만습니다 이런애기는 대개시골보다 도회지에 만히볼수잇는데 중류계급이상 가정의애기들에게만습니다 이소질을 가진애기는 몸이마르고 살ㅅ결이 창백한편이며 근육의발달이 납부고 한번 울기시작하면 여간해서 안끄치고 잠이들때 잠이깰때 유난스러 잘버채며、잠잘때에 엽헤서 바시락소리만나도 깜작놀라깨는 애기들입니다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만습니다 다만 몸에별고장업시 이런소질을가진애기는 어머니나 아버지어느편에고 신경질(神經質)인경우에 태여납니다。그리고 어린애기는 그런부모에게서 그소질을 타가지고세상에나와서 또주위환경의 영향을바더 점점더신경과민이되어버리는것입니다 그렁으로 이런애기를 가진부모는 먼저 재긔자신의 수양이필요하며 언제든지 마음을가라안치고 집안에될 소리안나게 해야할것은 물론 애기에게는 늘영양에주의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우리차지

오는 사월일일부터 경성이 훨신 커진다。이때까지 경성으로 치지 안튼 영등포、청량리、왕십리、동막、돈암리、홍제리、부암리가 웬통 경성부안에 들게된다。그러니 서울이 넓어도 지지만 사람수효가 붓적 늘게될것아니냐。

(글은사람 홍근배)

童話 세마디말(上)

任元鎬

『아로야!밥안먹니?』

『……………』

아로는 말이업시 고개만 끄떡끄떡。

『너、나이가 몃살?』

『……………』

그래두 말이업시 두눈만 끄먹끄먹。

아로는 세상에들도업는천치 그리고 벙어리는 아닌데두 웬일인지 말을못하드랍니다。이모양으로 차차 자라갈스록 그의아버지는 몸이달허 말못하는 아들의말문을트워주려고 별별 가진짓을 다해봣습니다만은 이내 아로는 한모양이엇습니다。

『이걸어쩌노? 세상에 별일두 다만라―어휴!―』

아로의아버지는 지고새면걱정 걱정끗헤 한숨。이러케 세월을 보내다가 하루는 그어느마술에 말잘가르치는。선생님한분이 잇다는 소문을들엇습니다。이말을듯고는 급한마음에 빨리빨리 서들어 아로를데불고 선생님을 차저가 답답한 사정이야기를말햇습니다。

『애가 벙어리는 아닌데두 웬일루 말을 못한답니다。선생님 무슨 조혼수가 업겟습니까?』

『참말루 벙어리만 아니면 그야 걱정이 뭐요。네녜 석달동안만배우면 말다할테데―』

걱정말라 쉰소리로 뽐내는 선생님의말。이말에 아버지는 안심이되여 집으로돌아오고 아로는 말배우기를 시작햇습니다。

이날로바루 선생님은 아로에게 가르치는말―

맨처음에

『어서오십쇼!』

천만가지 말중에 이말한마디를 먼저 일러주섯습니다。아로는 얼굴이 새빨개서 끙끙거리며 한참한참 애를쓰다가 엄마만에 갓갓으로 입을열어 말을햇습니다。

『어서 오십쇼!』

생전에 처음 말문이열린아로는 잇지안흐려고 이말을 쉬지안코 굴리듯 외엿습니다。그러는동안에 벌서 한달이되엿읍니다。한달만에야 선생님은 새루 한마디 일러주시는말―

이번에는、

『편이 안지세요』

아로는 다시한참 끙끙거리다가 이말을햇습니다。그리고 자꾸자꾸 되푸리하는동안에 어느듯 또한달이 지낫습니다。선생님은 다시―또한마디 일러주시기를―

이번에는

『벌서 가시렵니까?』

마천가지로 아로는 얼마동안 애를쓰다가 이말도 또햇습니다 거듭거듭 되푸리하는동안에 이 한달도 마지막 한달만에 한마디씩 아로는 석달만에 세마디말을 배웟습니다。자고새면 되푸리로 하는말 입에발리여 조곰도 서슴지안코

『어서 오십쇼―편이 안지세요―벌서 가시렵니까?』

그리고 입에발린말 밤에잠잘때 꿈에두 이 세마디말을 잡꼬대하게 되엿읍니다。

마지막 석달이 꼿나는날아침 선생님은다시 아로를불러 말하시기를―

『아로야!너、어디 말좀해바라』

『어서오십쇼!―편이 안지세요―벌서가시렵니까?』

아로는 거침업시 물흐르듯이 세마디말을내리외엿습니다。

『올치!올치!잘한다。다배웟구나 인제고만 집에가거라』

선생님은 기뻐하시며 이날로 아로를 집으로 돌려보냇습니다。

세게제일큰상어

상어는 바다의맹수라고도할만한 무서운물고기입니다 이런물고기를 태공망들은 낙시때하나로때려잡는수가잇스니 용한노릇이지요 사진은미국서부해안에서잡은 상어인데 크기가아마 세계제일은될것이라고합니다

학의정가

소변이자조나와

問 삼십일세의 남자이온대의사에 진찰을하니까 신경쇠약이람니다 장내의까스가 생기며방귀가 자주나옵니다 그리고소변은 주야칠팔회 혹은 오륙회가나오며 분량은 적고 뇌의가빈발합니다 신경적으로도 이런일이 잇는지 하교하여주시요

一讀者 李太山

답 신경쇠약의 증세로 소변이 자주보게되는일도잇습니다 아마 당신의증세도 전신의 신경쇠약으로 온것가습니다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신경병과위ㅅ병

問 이십구세된 남자입니다。십삼년전부터 소화불량증이 잇습니다 유정과 몽설증도 잇스며 간혹 불면증도 잇습니다。삼년전부터 흉담과 백담이 자조 나오며 우편 하복에 무슨 뭉치가 잇는데 눌르면 갈갈 소리가 나며 우편으로 눌르면 빠각빠각소리가 나며 우편으로 누르면 불편하며 끌끌소리가 납니다 금번 의사에게 진찰한즉 위병과 신경병이라하오니 무슨약을 먹으면 조흘는지요。

湖南 一讀者

답 위병과 신경쇠약증세입니다。진찰한 의사에게 상의하여 치료하십이 조켓습니다 그것은 시시로 증세에 의하야 처방이 밧귀는고로 일정한 약을 말씀키 어렵습니다。한편으로 신경이 다 전치되도록 규측적으로 생활을 하시여보십시요。

大學病院 伊藤內科 朴秉來

地下村(十)

姜敬愛 作 熊超 畫

이튿날 일부러 늦게 일어난 칠성이는오늘은 기어코 큰년이를 맛나 무슨말이든지 하리라 만일 시집가기로 되엇다면…… 그는 아뜩하엿다。그때는 그만 죽여버릴까 나두 그칼에 죽지하고 뒤뜰로 나와서 바자겻에 다가섯다。큰년네집은 고요하고 뜨물동이서 왕왕그리는 파리소리만이 간혹 들릴뿐이다。가자!바자에서선듯 물러섯다。눈에 마주띄이는 저압에큰차돌은 웬일인지 노랏케 보이엇다。

그는 숨이차서 방으로 들어왓다。옷을이모양을 하구가 하고 굽어보앗다。쇠똥자죽이 여기저기잇고、군대군대 해젓고、뭘눈이 멀엇는데 이게보이나그럼 맛나서는 머라구 말을해야지 그는 천정을 바라보고 생각하엿다。입가에 흐르는 춤을 멧번이나 시하고 들여마시나 그저 캄캄할것뿐이다。생전 말이라고는 못해본것처럼 아뜩하엿다。

내가 병신이를 저가 아나하는 불안이 물숙일어 맥이 탁 풀린다。『너까지것에게시집가!』하는 큰년의 말이 들리는듯해서그는 시름업시 밤을 내다보앗다。

바자에 얽힌 호박넝쿨 박넝쿨 그엽호로 옥수수대 썩나와서 살구나무 적고큰 댑싸리가 아무 기탄업시 하늘을 바라보고 가지가지를 쭉쭉첫스며 입입히 자유스럽게 미풍에 흔들리지안는가。웬일인지 자신은 저러한 초목만큼도 자유롭지못한것을 전신에 느끼고 한숨을 후 쉬엇다。

한참후에 칠성이는 맘을 단단히먹고마당으로나와서 큰년네집 압호로 멧번이나 왓다갓다하다가 싸리문을 가만히 밀고 껑충 뛰어들엇다。

봉당문도 꼭 닷치엇고 싸리비만이 한가롭게 노혀잇다。어쩔에 봉당문을 빼꺼열엇슬때 고양이 한마리가 야옹하고 뛰어나간다。그는 어찌 놀랏든지 숨이하늘에다을것처럼 뛰엇다。봉당으로올어서서 한참이나 망서리다가 방문을 열어보앗다。무거운 공기만이 밀려나오고 큰년이는 업섯다。시집을갓나? 뒤들로 인기척을 차즈려하엿스나 조용하엿다。그는 이러하고 하고 얼른생각하면서 부억으로 언제까지나 잇슬수가 업서서발길을 돌리렷슬때 싸리문소리가 난다。그는 어쩔에 기둥어편으로와서 그뒤 멍석것헤 바싹다가섯다。

나더니 큰년이가 빨래함지를이고 돌어온다。그의눈은 캄캄해지고 전신이 나른해진다。큰년이가 그를 아라보고 이리오는것만갓고、그의눈은 먼것이아니오 언제나 창틈으로 볼수잇는 별눈을빼끔히뜨고서 처다보는듯햇다。숨이차서 견될수업스므로 멍석아래 뒤로들어가며 숭숭축이엿스나 점점더 숨결이 항항 그리고 멍석눈에 코가 맛다아서기절을 할지경이엇다。

큰년이는뒤들로나간다 짤짤끄는신발소리를 들으면서 머리를 내밀어 박글살피고발길을 옴기렷으나 왼몸이 비비꼬이어 한보를 옴길수가 업다。억색하야 그만 집으로 기랴고도 햇다。그의 몸은 돌로된것 가탓스나 마츰 빨래널리는 소리가 바삭바삭나자 큰년이가 읍으로 시집간다!하는 생각이 들며 발길이 허둥하고 떨어진다。

큰년이는 빨래를 바자에 걸치다가 휘근 돌아보고 주춤한다。칠성이는 참아큰년이를 처다보지못하고 우둑허니 서잇섯다。

『누구요?』

『……………』

『누구야요?』

큰년의 음성은 멜려나왓다。칠성이는 무슨말이든지 해야할터인데 입이 깍붓고 떨어지지안는다。한참후에 발길을 저척하고 내드디엇다。

『난누구라구……』

큰년이는 바자것으로 다가서고 머리를다소곳한다 곱게감은그의눈등은 빨랑빨랑 떨엇다。칠성이는 자기를 알아보는것을알고 조곰 맘이 대당해젓다。이번엔바기 걱정이 되어 연신눈이 그리로만 간다。

『나가야 어머니 오신다』

큰년이는 앙팡지게 말을햇다 어려서 음성이 그대로 나아엿다。

『너너 시집간다지 조흐겟구나!』

『새끼두 별소리 다하네 나가야』

큰년이는 빨래를 조용작그리고서서 숨을 가쁘게 쉬인다。해여진 적삼등에 한줌씩 불룩솟아잇다。칠성이는 무의식간에 다가써다。

『아이구머니!』

큰년이는 바자를 못놓고 소리첫다。칠성이는 와락접이 일어 주춤 물러서고 나갑까도햇다。압이 캄캄해지고 또 떠올핏줄 도가랏 갓햇다。

新日本의傑作品
젤은싱거―미싱과同一
가격은舶來品半價!
登錄 商標
陸軍省御用 文部省御推奬
海軍省御用 各女學校採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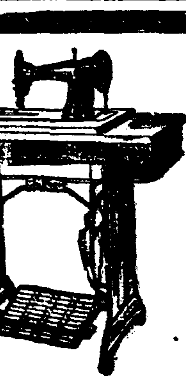
躍進日本!의覇者

이數年來顯著한發展을하고잇는 躍進日本의工業은、文字그대로의 進步發展의結晶으로서 世界的驚異를 밧고잇는 我國最初의本格的!!國産蛇目재봉틀!!을生産하게되엿습니다。

國産 蛇目재봉틀은 萬國標準型을 採用하고잇는故로 모든部分品이世界各國에서 마음대로 살수잇는것은 勿論、舶來品과比較하야서、털끗만한遜色도업고 더구나、價格도半價로됨으로 只今은全世界를壓倒하야『싸고도 優秀한世界第一』이라는定評을밧고 멀이海外各國에까지輸出이 急速한피치를올리고 잇습니다。

東京 大阪의 本工場에서는 年産額一百三十萬圓에 達하고 從業人員四百餘名只今은自他가共認하는 東洋唯一의 미싱製造會社로되야잇습니다。

全鮮進出를目的하고 一郡에一店을標準하야 代理店을募集하고잇사오니希望者는 道城을申込하시면年數上豫想數及特定價格等을 詳細히回答하여드립니다。



萬國標準型 國産蛇目미싱

希望者는 京城府 萬稔ミシン商會 代理店係로

現在各代理店

沙里院 李泰商店 禮唐 吳得商店 延安 延安裁縫機械商會 惠山 鮮興商店 海州 福聲商會 靑陽 尹斗煥商店 南原 朴琪永商店 南川 平山ミシン商會 發津 金津裁縫機械商會 昌城 … 慶州 尹鍾澤商店 甲子 基業組合ミシン部 信川 信川ミシン商會 平原 李一植商店 車輦館 李萬鎔商店 宜寧 宜寧商會 安岳 金秉律商店 龍南浦 歐米裁縫機械商會 龍岩浦 鮮滿ミシン商會 江華 高必善商店 論山 中聖ミシン商會 安城 安城ミシン商會 固城 千泰洪商店 新義州 金明熙商店 平壤 各國ミシン商會 金泉 朴聖鎬商店 向州 朴容勳商店 晉州 二中商店 水原 水原ミシン商會

象三浦 李慶八商店 松禾 李基元商店 井邑 井邑ミシン商會 昌寧 崔奉世商店 加平 鄭泰復商店 谷山 谷山ミシン商會 江西 平和商會ミシン部 寧越 金一鴻商店 大田 馬一鐘商店 醴泉 黃在宇商店 群山 趙錫九商店 瑞山 川端商店 開城 開城ミシン商會 忠州 中山ミシン商會 牙山 同春商會 載寧 李錫燮商店 吉州 梁錫煥商店 順天 高李ミシン商會 榮州 安正鎬商店 全州 合名會社三和商店 扶安 金在根商店 光州 光州ミシン商會 樓里 吳達先商店 木浦 萬稔電器商會 高興 朴魯順商店 城津 東京堂時計店 碧潼 金栗五商店 坡州 鄭錫商店 北靑 北鮮ミシン商會

資本金百萬圓
東京 大阪 帝國ミシン株式會社
朝鮮總代理店 萬稔ミシン商會
京城南大門通一丁目九九
電話本局(2)四五八三番 振替京城一四五二八番
本社 大阪 各地支店 東京 名古屋 …

蛇の目 미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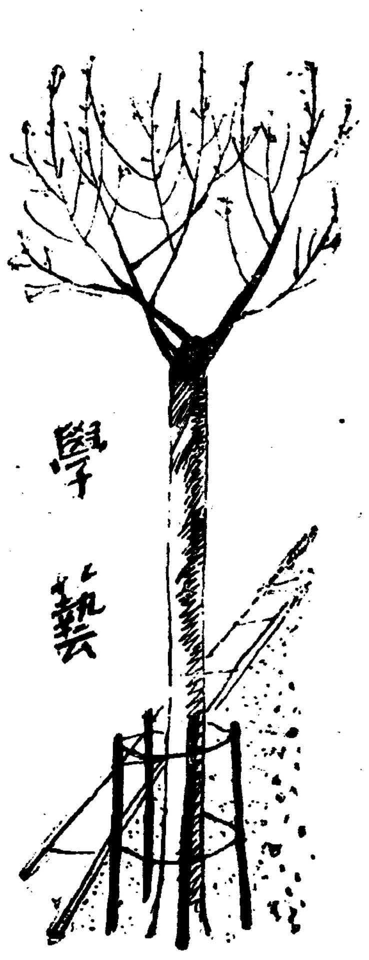
人造人 (3)

萬海

人造人을 完成하는것은 空前의 大發明이므로 산 사람의 分解하는것을 道德과 法律에서 默認을한다 할지라도 산 사람의 分解가 技術的으로 될수가 업는일이다 사람이 解剖臺위에 누울때까지는 사랏다 할지라도 分解術을 시작하야 어느程度까지 肉體를 破壞하면 그사람의 生命은 업서질것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산 사람의 生命을 分解할 수는 업는일이다 그러면 그다음은 生命과 肉體를 分離식혀서 따로따로 分解하는것인대 거기에對하야 말하자면 理論이 너무 길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그만두기로한다

何如間 人造人을 自然人처럼 만들수가 잇다는것을 前提로하고 人造人을 完成하면 人造人과 自然人과의 關係가 어찌될것인가 누구든지 처음으로 人造人을 完成하다면 好奇心으로든지 技術의 宣傳으로든지 하나만 만들고 말리는 업는것이고 男子도 女子도 少年도 靑年도 老年도 或은 中性도不具者도 자기의한 멋치는데까지는 여러男女를 만들것이다 그러나아모리 人造人이라도 사람인以上 實質하는것은 人道上 또는 法律上으로 許諾할수 업는일이므로 人造人의專賣特許를 마들수는 업는일이즉 自然히 여러사람에게 그技術을 公開하게 될것이다 그리하야 그사람들이 또 여러男女의 人造人을 만들면 얼마아니되야서 濫造의弊가 생길것이다

濫造의弊가 생기다 할지라도 人造人을 만든 사람으로서 旣成된 人造人을 도로 解消할수는 업는일이다 아모리 人造人이라 할지라도 肉體 精神 生命 意慾 무엇이든지 조곰도 自然人과 다름이 업는즉 個人으로도 解消를 當하고자할리가 업고 法律上으로도 完全한 人格이 될것이즉 人造人을 解消하는것은 곳 殺人罪를 犯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면 自然人만 하야도 失業者가 만히나고 먹을것을 求하기위하야 戰爭과 殺伐이 끈치지안는 世上에 人造人이 濫造되면 그들도 生命이잇는以上 먹어야되고 입어야 될것이즉 그亦 如干한問題가 아니다



文藝時評
浪漫인가寫實인가?
—今月創作의吟味—
⑤ 白鐵

勿論 林檎의 作者는 다만 그런 陰鬱한 분위기에만 머지안코『그는 올곤길이면 부끄러움을무릅쓰고 가볼만한 용기와양심이 새로 솟앗다

그는 이날에 비로소 제가 갈길을 차즌듯하엿다 맨밋바닥을 걸어가자!거기서부터 떠나기로하자!』의 自覺하는 過程까지 到達한다 한데 이過程까지 到達하는階段은 深刻한 心理的 反省을通한다든가 苦悶을한다든가하는것에 依한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다른 外部的으로 事件을 適當하게 가저오는데서 그外部性의 壓力에依하야 主人公을 覺醒한데까지 引導하는 手法이나, 그것은 두말할것업시 浪漫的인自我의延長이아니고 純全히 寫實的이다!

이러한 素朴한 寫實的手法에 依하야 作者는 이作品의 後半에서 非凡한成功을보여주고잇다『경수』와 안해가 言爭을 하든끄테『납?……』안악은 그말이 원통하엿다. 그는 남편을 사랑햇든것이다. 가난에 저른 얽힌 정이엇다』에서 보여준 人情味의 肉迫과『굴룩에서 연긔가 끈허저바……뉘집에서 황조미 한줌이나 꾸는가』에 나타난 心理의 自然스러운점, 坊場의 風景의 描寫, 鐵道沿邊에서 애들이 노는 光景, 다리에서 사과장사하는 女人들의 事實, 驛長과의 對話等에잇서서 이 作者는 才能잇는 作家로서의 力量을 到處에서 發揮하고잇다!『경수』가 一時 洸惑되여잇든『갑분』에 對하야는 具體的으로 그것을 그리지안코 省略해가는手法가튼것도 作品의 事件을 整理하고 스토리이의 렘포를 빨니하는데 必要한것이엇다고보다!

이作品에대하야 浪漫인가?寫實인가?를 무르면 나는 勿論 그가운데서 主人公의 一定한決意를보며 그決意압페 一定한未來와 理想을 前提하고 잇는것은 理解할수잇다! 하나 그것은 무슨 浪漫的無期보다는作者가 人間的으로 가지고 잇는한 生活的態度라는것이 適當할것이다 寫實의길!오히려 그것이 이作家의 態度를 決定하고잇는듯하다。

얼마동안 浪漫과 寫實의 主題에서 떠저서 그것을 바라보는것 그보다도 一層內部的으로이 主題의 意義를 決定하기위하야 作家의 心情問題에서 出發하는것이 必要할는지 모른다!우리들은 浪漫의 主潮라든가 寫實의潮流라는것을 생각하는代身에 浪漫의 心情 或은 寫實의 그것을 생각할餘地를容認할수잇스며 적어도 今日의 우리創作界는 그런 心情의 程度에서 吟味하는것이 自然스럽지안을가?

이러케 생각하면서 宋影氏의『月波先生』(本紙夕刊四面連載)을보다 疑心할것업시『月波先生』은李孝石氏의『들』 韓雪野氏의『林檎』과함께 今月創作中 優秀한 三篇中의 하나임에틀님이업거니와 그러나 이때에잇서 이作品을 今月中 優秀한作品으로서 薦擇하는데는 적어도 讀者에게 誤解밧기쉬운 立場에處해잇슴을 나도모르는 바는아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作家는『月波先生』以外에 實로 輕蔑하는데 價値잇는 두가지作品『아버지』(中央)『능금나무아래서』(朝光)를 發表하고잇는 까닭이다! 그두作品은 默作이라든가 粗作이라든가보다는 다만 너무 輕薄하고 無爽心한 態度에 憎惡하는수박게 업는 浮薄한 作品이엇다 그럼으로 이두作品만을 읽고『月波先生』을 읽지아는讀者는, 말할것도업시『月波先生』을 優秀한 作品으로 取扱하는 나의態度를 疑心할 理由를 充分히 가지고잇을것이다 事實 나여시지금까지 이作家의 短篇을 읽으限에서는 短篇小說家로서 긴홍信賴를 이作家에게 두어오지못한까닭에 이번까지 失望햇으면나도完全히 短篇小說家로서 이作家의 才能을無視햇을는지모르다 그만한 時期에 이『月波先生』을 읽고 이作家에對한 才度를 바구게된것은 作家自身을 위하나내 自身을위하나 實로 적지안은幸運으로 생각하고싶다!또한 그意味에서 나는이作品의價値를 貴하게 取扱하려는바이며 다른二作이 默作임에不拘하고 이作品만은 優秀한것임에 틀님업다는것을 極力으로 辯護하려고한다!

『月波先生』에서 첫재로 注目할점은 作品과同名의 老主人公의 性格創造이며 그것은 이作品의 成功은 確實히 이老主人公의 性格의魔力에 잇다고 보혀지려만치 興味잇는것 이엇다 그리고 그性格의 魔力이란 다른것이아니고 現實的으로는『新』에대한 無理한憎惡와 極度의 嫌惡의 表現이엇다 自己의 所有의 온갓것이 新人들에게 빼앗기려고 할때에、十五年以來의 自己의 全財産이며 全生命이든 그글방『時中義塾』이『新學問의 私立學校』때문에 그젊은敎師 朴先生때문에 모도가沒落해가려고할때에 老主人公 月波先生이 그『新』을 相對하고 憎惡하는것은 當然하엿든것이다

戲曲 春香傳 (三)

【禁無許上演】

柳致眞 脚色

春香 어머니 듯조시오 제발 남자저오신서방님을 괄시마시고, 서방님울랑집에 모서다가 우리들이 인연맺든 부용당(芙蓉堂)에 점화(點火)하고, 두리면면 금침펴고 사처를 정하시고, 건넌방 삼홍장에 필유면필 끌라내여 서방님 상하의복 여러벌 마르시고, 갓망건 꿈게하되 머리에맛게 잘마추고, 당힘 부시 쌈지 엽랑자개함에 드럿스니 청홍마처 내여노코, 오색바랑 차주코 레사혜(太史鞋) 한켜레마초지고, 향교(鄕校)말 섞좌수(成座首)에게 돈二千량 맛것스니 그돈 즉시 차저다가집안에 가용하고, 하로걸라 양집내여 시장치안케 권하시고 어머니도 잡수시옹 내가 죽어 업다하야 어머니가 회를내여 불평케 하옵시면 절라에 오신 랑군 그마음이 편하리까?설움을 알거니와 만일 필시하신다면 불효녀식말이오나 자결하야 죽을려이니 처분하야 하옵소서。

月梅 저런 빌어도못먹을년 집알란다。

春香 향단아 게잇느냐?

番丹 네。

春香 서방님 칠수번질 안령하시고 불평하신것은, 졈허 너하기에 잇스니, 밤참 조반전후사(早飯前後事)를 지성으로 공궤하고, 동은밥 리주부께 화제내여 약지어다 하로 두첩식—네 다 알지? 네마음 내가 알고, 내마음 네가 아니 별말이 잇겟느냐?

番丹 아씨 염녀 마십시오。

春香 그리고 서방님。내말슴 드러주오。서방님도 드럿스려니와 저는 명일 죽사이다。그러니 명일은 서방님께서 아모데도 가지말고 옥문밧게서 삼문밧게나 직혀섯다가 춘향올려라하고 령이 내리거든 손소 내칼머리나 드러주고, 나를 죽여내치거던 다른사람 손길대기전에 서방님이 달여들나의시체를 두러처업고 내집에 도라와 시상(尸床)바처 뉘인후 나의초혼(招魂)불러주되 옥중에서 서방님을 그려 갓자허은 원무수(逆流水) 떰내무든 속적삼 벗겨내여 허공중친 동동내 두르며, 해동조선 전라좌도 남원읍 강선리 암자생 성춘향 복!복!복!—이러케세번만 웨치고 질중우에 촛드리고 수의도 하지말고 내입으랴고 지은의복 가초가초 다잇스니 마음대로 골라입혀 염포입관(斂布入棺)도하지말고 서방님이 나를안시고 정결한곳 가려차저 깁히 파고 무드실때 서방님속적삼벗서 내가슴을 덥허주고 모전에 표써세고 표세에 글을쓰데 수절원사춘향지묘(守節冤死春香之墓)라 대자로 크게써서 묘압헤 세워주면 절의죽은 혼이라도 아모한이 업겟나이다。

夢龍 (傍白) 내가 어사란것을 알려주엇스면 조흘련만 도시 그럴수는업고……

春香 어머니 어머니께서 애쓰시기도 오늘뿐이옵。내일 이맘때면 내몸은 벌서 식어버릴것이니 불효한 이 자식을 안나호신줄만 아시고 니저버려 주시오。前은신 어머니께 말벤에 조금이라도 랑을 보여 드리고자 주야로 생각하엿는데 그도 못하고 아울죠한 자식은 돌아 갑니다。부대내입 이몸이 죽는자리에는 어머니는 오시지 마소서。이자식 죽는꼴을 어머니가 어이참아 보시리까? 부대오시지마시오 예 어머니。

月梅 (눈물흘리씨는다)

春香 향단아 너도내일 마님외시고 집에잇고、내죽는 자리에는 오지마라라。내귀경는아예말고 마님을 위로하되 마님이 우시거든 이웃집부인네께신신히 간청하야 우리집에 놀려오게하고、미음원미 자루주어 시시로 권케하고 비취첩상노갑안에 인상멋근 드릿스니 낫치말고 대려드리고조석으로 다리밟아드리고 그래라、부대부대 마님봉양 잘하엿다오。

番丹 아씨대신 마님을 잘봉양하고 살겟슴니다。

春香 서방님 도리는 아니오나 마즈막으로 깃히 말슴 부탁할일 잇나이다。내몸 일신죽어지면 불상한 우리모친 누구를 의지하고 사오리까?날일코 애통타가 설워도 죽을테요 굶어도 죽을테니 서방님께서 하해가튼 처분으로제에미를 밧드러서 친어머니가티 생각해 주시오면 죽어황천돌아가서 결초보은 하오리다。

月梅 이년아 듯기싫다。이에미가삼터진다。(月梅는 참아몰수업서避해나가려한다)

春香 (한숨을 휘쉬며 외러게오는다) 차생에 미진한을 후생에나 다할는지。할말이 무궁첩첩하나 대강 그것만 부탁하옵고 서방님은 귀케되어부대 제원수를 갑허주오。

夢龍 오냐 춘향아 아모 근심말고 오을밤만 새워라。학민사영(虐民私營)하는 탐관오리(貪官汚吏)! 에이 죽일놈들가트니 두고보자 내일이면 결단이 나렷다。

(夢龍나가는月梅香丹을따러서退場)

陽春路程記

=빨래=

어제 오늘갓해서는 솜옷도 벌서 무거워젓다。

빨래터의 방마치소리는 驚蟄의 斥候인가?

배꼿과가티 漂白한 이땅의 服色이 업섯든들 調和를 어듸것인가?

양지쪽 산골물은 손끝도 스리지안흔데 새색기들은 어듸를 가고 푸르기만하다는 봄은 무엇으로 보이지안는가?

人間學第二序論
—人間의存在에對하야—
⑧ 金基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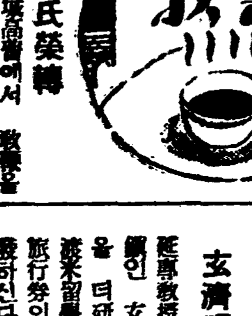
우리들은 思惟를 단순한 觀念의世界로보는것을 反對한다。思惟는 存在를 思惟하기위하야 存在의觀念이란것을 設定하고 存在의觀念이란것을 設定하기위하야 부단히、움직이는存在를 옴직이지안는 表象으로 表象하게되는지 모른다。그러타고해서 思惟는 전연 存在를떠난 純粹한 觀念을 만들어내일수는업고 이르는바 純粹한觀念이라는것이로 消滅할수는업는것이다 思惟의世界는 行爲의世界와 한가지로『아르바이트』의世界이다。思惟의概念은『아르바이트』의概念에잇서서 規定된다。思惟를 가지는일은『일人감』을 가지는일이다。人間이 思惟에잇서서 자기를 다른存在로부터 구별할때 人間은 다른存在가 가지지못하는 한개의世界를 가진다。人間은 思惟를가지는일에잇어서 存在를 바로思惟해야하는 그자신의 崇嚴한 課題를 바더가진다 사람들은 人間이 行爲를가진다고 말한다。人間은 行爲를 가지는일에잇서서 자기를 行爲的인 存在로限定한다고말한다。行爲는 思惟와함께 人間을 本質的으로 規定하는 다른한개의 原理가아니면 안된다 이行爲의 概念을 우리들은 엇더케 把捉해야할것인가 行爲는 엇던意味의 運動이다 行爲의 概念은 運動의 概念으로 遠語된다。그런데 行爲는단순한運動은아니다。단순한運動에 그치고마는것인한에서 그것은運動이면서도 運動이아닌 새로운자기를 限定할길이업기때문이다。물이흐르고 바람이부는데서 우리들은 運動의 世界를외온다。

그러나 그속에서 우리들은 行爲의世界를 외오는것이 아니고 또외올것이 아니다。行爲의 世界는 엇던性格에잇서서 자기를 단순한 運動의世界로부터 구별해야 한다。行爲의 世界는 어느意味에잇서서『生』의世界다。行爲의 世界는『生』의世界에 나서는일에잇서서 자기를 단순한運動의 世界에대한 새로운運動의 世界로限定한다。그러면서도 行爲의 原理는 단순한 生長의原理는아니다。단순한 生長의原理에 그치고마는것인한에서 그것은 生長의 原理에 사히면서도 그자신生長의 原理를 버서나는 한개의 새로운 原理를 構成할길이 업기때문이다。풀이 옥어지고 나무가자라나는데서 우리들은 生長의 世界를외온다。그러나 그속에서 우리들은 行爲의世界、實踐의 世界를 외오는것이 아니고 또 외여서는안된다。行爲의 世界는 엇던性格에잇서서 자기를 단순한 生長의 世界로부터 구별해야한다。

우리들은 行爲가運動의 한自己限定임을보앗다。우리들은 行爲가 運動의 한自己限定이면서도 그것이 단순한 生長가튼것에 그치고마는것이 아님을보앗다。行爲는 思惟的인 行爲다。行爲는 思惟를가지는 生長이요 思惟를가지는 運動인것이다。思惟와 떠날때行爲는 단순한生長 단순한運動에 떠러진다。우리들은 여기서 思惟와 行爲의 關係를본다。思惟는 그자신 엇떤意味의 行爲이요 行爲는 그자신 엇떤意味의 思惟인것이다。思惟를 觀念的인것으로보는 오늘의사람들에게 行爲를 思惟的인것으로 說明하기가 힘든것을 안다。思惟를 단순한觀念的인것으로보아 思惟의 概念을 그릇친 그들은 行爲를 단순한 運動的인것으로보면서 行爲의槪念마저 그릇치고말엇다。

思惟는 存在에대한 思惟이엇다。思惟가 存在에대한 思惟인데서 思惟는 한개의『일人감』으로주어진다。思惟가 存在에대한 바른思惟가되어야하는데서 思惟를가지는일은 한개의 課題를가지는날에나선다 우리들은行爲가 思惟的인데잇어서 한개의 課題를 人間에게 가저옴을보앗다。

어제우리들은 行爲가 行爲的인데잇어서 다른한개의 課題를 人間에게 가저옴을보아야한다。



李孝石氏榮轉

그동안 鏡城高普에서 敎鞭을 잡고잇든일면 著 創作에 精進하시든 作家 李孝石氏는 今番에 平壤崇實專門學校敎授로 榮轉하기로 內定되어 不遠間 任地로 赴任한다고。

玄濟明氏渡米

延專敎授로서 우리樂壇의 重鎭인 玄濟明氏는 다시 音樂을 더硏究하기위해서 再次로 渡米留學을 하시려 한다는데 旅行券이 交附되는대로 곳出發하신다고。

物理學上으로본 宇宙線
① 延專敎授 崔南奎

이原稿는 지난二月八日부터同十五日까지 本欄에실엇든『新興物理學의趨向』이라는 論文의 續稿입니다。

카스믹線에 對한 新學說은現今物理界에 가장 興味잇고따라서 만흔 學者들間에 硏究의焦點이되여잇다 此를 헤쓰(Hess)線或은 超透過線이라고도名하나니此에對하

研究는 에─ 룬스터까이더웰손諸氏等이 一九〇〇年에 電流計를使用할때에 偶然이 極少한『殘留이온』化가 有한 事實을發見하고 其原因을 追究하는대에서 發端된것이다 其後一九一一年에 헤쓰의實驗으로 因하야問題는 再然되엿고 現科學界에서는 이不可思議의線에對하야『構成的要素가 무엇이며 어데로부터오는냐』하는二大問題를 解決코저 莫大한金錢과 努力을 액기지안코 研究에 沒頭하고잇다 이宇宙線의存在를 是認하기는約三十餘年前이라고 하겟스나 實際 具體的研究와 實驗에 着手하기는 一九二五年부터라고 밋는다

世界的으로 名聲이놉흔 쉬카고깽들은機關銃을 一大發射武器로使用하지만은 現世物理學을 硏究하는 物理깽들은『라지움』이나『우란니엄』가튼 所謂 放射性物質(Radio-active Substance)로 發射彈을 삼는다 機關銃의 彈丸보다는 겨우

每秒 半哩의速度로 彈丸이 쏘다저 나오나 이외가튼 放射性物質로부터는 종알보다 幾萬倍나 더 빠른 微粒子 或은 電磁波가 放射되는다。彈丸에도 여러가지 種別이 잇는것과가티 이 放射線에는 세가지의 種類가 有하니 卽 命名하야 알파 (Alpha) 베타 (Beta) 깜마 (Gamma) 線이라한다 前章에도 말한바와가티 이알파線은 四個의 푸로톤(Proton)과 二個의 電子(Electron)로 組成된 헤리엄(Helium)核의 集合體인대 每秒 萬哩의速度로 放射되고 陽電氣를帶하엿스며 베타線은 陰電氣를帶한 電子의 集合體인대 每秒十八萬六千哩 卽 光의速度로 放射되고 깜마線은 X線보다도더 透過性이 强하고 波長이 至極히 短한 電磁波이다 이외 가리三線의 性質이 特異하나 한가자 共通性이 잇스니 卽우리가 呼吸하는 空氣나 或은다른任意의氣體를 電離(Ionization)식히는것이다 卽 陽極과

陰極을 各各連結한 二個의 金屬板間에 라지움이나 도리엄과가튼所謂 放射性物質을 置하면 電氣는兩極間에 介在된 氣體를通하야 흐르는것을 볼수잇다 그러나 이電流는 至極히小量임으로 普通電流器로는 測定하기 不能하나 精密銳感한 檢電儀로는 測定할수가잇다 그런즉 讀者諸氏는 무슨理由로 不導體인 氣體를 通하야 電流가 흐르는냐고 反問하실것이다 機關銃알은 人命을殺傷하며 建物等을破壞하는 破壞性이잇다

▲一、朝光雜誌所載戲曲『轉機』(丁壽時代)全二幕四場中 남어지續篇 一幕二場을 읽지못햇는대 누구시든지 가지신분은 보내주시면 誌代를 드리겟습니다(萬年雪作) 一、朝鮮日報에 發表되엿든作(晏陽아래서)一、二、三、回分을 紛失햇는대 모아두신 분은 좀빌여 주실수업겟습니까?往復送料는 全擔하겟습니다。(崔俊作) 一、赤是同紙에 發表된 短篇 女子의 마음부中 一、二回分을 못보앗는대 或收集하신분은 좀빌여주섯스면 大端感謝하겟습니다。(張德祚作)

慶南東萊郡東萊邑校洞三二六 朴文鎬

▲宜川讀者諸先生들에게!昭和十年度 東林公立普通學校를 卒業한 盧己敏이가 現在 어대잇는지요? 어떤이에게 들은즉 그가 지난봄에 시집을 갓다는데 정말 갓는지요? (시집은 宜川어대)社交室로 알으켜주시요。그를 아는 사람이든지 또 그려치 안흐면 그가 친히 알리여 주어도 조켓습니다。그의 住所와 그의 시집을 갓는지 안갓는지를 아르켜 주시기를 諸先生에게 付託합니다。(모르는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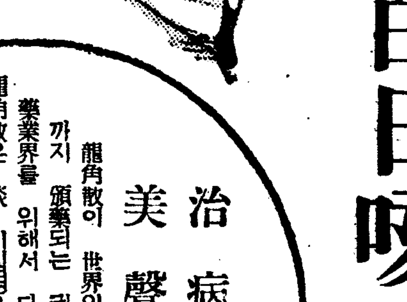
담기침 천식

流感기침·喘息

百日咳, 목쉰데

治病과 美聲도

龍角散이 世界의모든 樞要都市에서까지 頒藥되는 권위약으로 된것은동양藥業界를 위해서 다가티 경하 할바입니다 龍角散은 咳 기침병은 물론이고 아모리중환이된 천식이나 백일해라도 단시일에 근치식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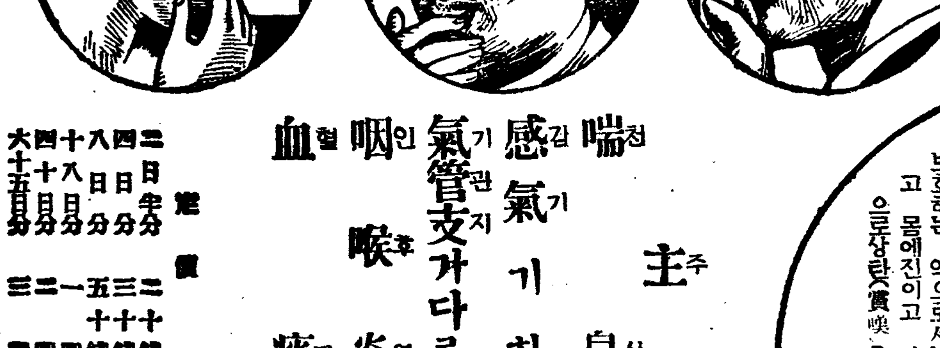
登錄商標

龍角散

큰것은 누구나 벌서 아시고 게시는바이나 지금에는성악가나 강연하는분들이 인후(咽喉)보호하는 약으로서는 오직 이것뿐이라고 몸에진이고 다니시며 이구동성으로상탄(賞嘆)을밧고잇습니다

龍角散은治病効果가빠름으로肺病 肋膜炎、肺結核으로變症되읍을방지합니다。

世界어느곳에서도잘팔이는龍角散



主効

喘息 百日咳
感氣기침 呼吸困難
氣管支가다루 嗄聲
咽喉炎 肺病기침
血痰 홍역기침

定價 二日半分 二十錢、四日分 三十錢、八日分 五十錢、十八日分 一圓、四十日分 二圓、大百十五日分 三圓

東京市神田區豐島町
本舖 株式會社 藤井得三郎商店
振替東京 九一二番
電話浪花(67) 一〇〇八、〇九〇二

F11—16

黃昏 【43】

韓雪野 作
安夕影 畵

음모 (二)

그새 사랑에서는 會社한 아버지가 임심조께 이러니 저러니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경재의말을 끄내다―

『아마 그게 경재가 올하、분명히、그런법해……』

『어서 보셧서요?』

하고 현옥은 악가 그의집에 차자가다가 만나지못하고 돌아온 생각을하며 이러케뭇는다

『자동차가 휘지나처버려서 독독히는 못보앗지만 뒤시 극장으로 들어가는거야』

『극장이요? 혼자에요?』

『아니……것혜못하가는게 아마 모른더벌라도 려순이야、뒤ㅅ태가……』

『려순이라니요? 네 네、회사다니는 개말슴이지요』

『그래 분명 올하……고기집애가 암만해도 숫보기가 아니야 요새 하는꼴이……』

『뭘 또엇젯서요?』

『아니 글세말이다 첨은 수수하니 시굴기집애답드니 이마적은 퍽 대부터 밝킨까지 기름ㅅ기가 죽죽흐른단말야』

『되도안혼게……제가 그리면될하는거에요。몰려나면 그날이마지막이지요』

『아니 그도 그러지만、경재란 사람이 주의점 해야겟서。암만해도 눈치가 다르단말야』

『무얼요。고변이 상전이나 모시드키 어려워하는체하면서 아첨을 대니까 그럼래지요』

『안야。기집도 기집이지만、경재의눈치도 미상불 달러젓서』

『아니애요。경재씨는 그런사람이 아니애요。제게 헌말이 잇는데요。』

『아니 물론 뭐시 작난이니까 네게 대해서야 뭐……』

『좌우간 고변을 내보내서요。기르든개 발뒤축을 문다고 그까짓건 뒤서 뭘하서요』

『허지만 댓바람에 그럼협수도 업는거고 또 사실은 불상한 사람이어。나가면 생도가 아주끈허지거든』

『불상하긴 뭐가 불상 해요? 사람을 몰라보고 아무 에게나 주제넘은짓 허는년이 뭐가 불상해요。그래 백번 죽드면 경재씨가 거지발싸개가든 변을될하겟서요』

『안야、그만 올할거 업는 거야。제가 아모리 그러 드라도 남자가 원악 정신으면야 엇더대고 그리겟냐?』

하는 사장의 가슴에는 사실 저만아는 한가지 걱정한거석이 잇다。러순을 다하면만이라도 그 손아귀에 너어보라는 그는 려순이와 가장 친근한 경재를 그에게서 멀리 떼여버리라는 심산을 가지고잇는것이다。그리자면 자기가 말하는것보다、경재의아버지나 현옥이가 견제하는것이 가장 보람이 잇슬걸이요 또 사리상 떳떳한 일일것가리 그는 생각하고잇다。

『경재씨와도 말할레에요。제면 사나운줄도 모르고 일개 녀급사와……그리고 자기집에서 어더먼든 녀자가 아니애요』

하는 현옥은 실상 아버지의 참속은 몰랏지만 저는 도저대루 생혹이 바짝 올라서지금 당장이라도 뛰여가서 한비탕욕톡히 해대고십흔 상이다。

『허나 남자란 괴상한 물건이 되어서 말을 주의해야 하는거다』

『무얼요 제가 동경서 나와서 하도 갑갑해하기에 그새가만내버려두엇지만……인제 안버지도 책망하서요』

『제영감 말도 안듯는데 그래 내말을 들을상십호냐?』

『자기아버지는 웨 암말도 안헌대나요?』

『아직 그런줄이야 모를레지。나는 노상 보고잇스니까 알지만……』

『자기집에도 말할레에요。경욱어머니더러요』

『하지만 그는 게몬데 어디잘 들을나든』

『아니애요。어머니더러 애기하면 자연 그아버지에게도 말이 갈거아니에요』

『어쨋든 죽첨 말할사람이 말해야지……』

『저도 물론 말하겟서요。아버지도 말슴하서요』

『글세 나도 말은 하겟다만그보다 난 첫재 려순할 주의식혀야겟서』

『그까짓건 사람이 되랴구 말을 하서요。내보내구 말지요』

『뭐 아직 그럴것까지는 업구……또 그게 그래뵈여도 사람이 엽엽해서 말을 해주면 곳 잘 알아들어』

『아직 암말슴도 안하섯서요?』

『……』

눈치는 발서부터 달렷슬레데요 하며 현옥은 딸팔시게를 본다。그러나 극장은 발서 파한지기 오랠것이다。바로 경재의 집으로라도 달려가볼까하며 저욕히 생각하고 잇슬지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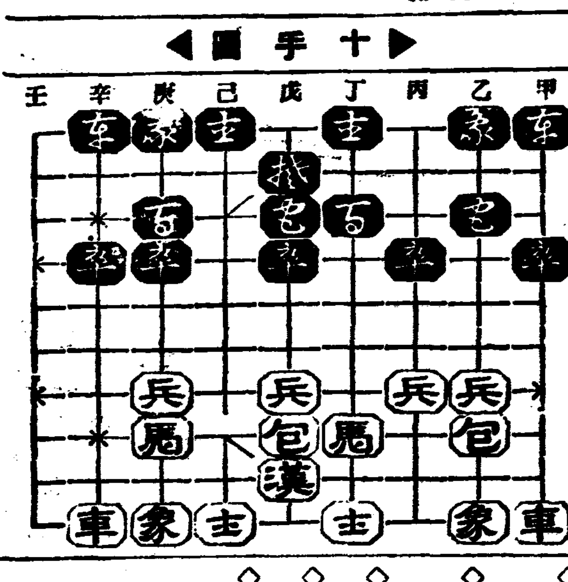
『영감! 안방으로 점……』

하는 멜리는듯한소리가 들여온다。어머니의 소리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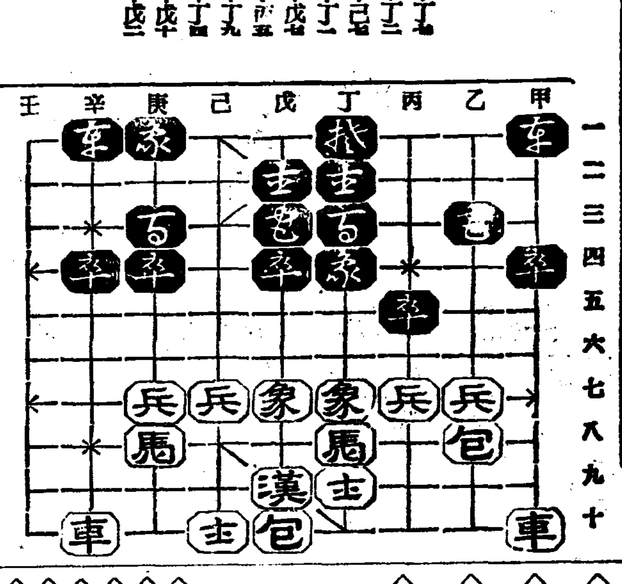
先手 一兵 李在鳳 對 金漢榮

◀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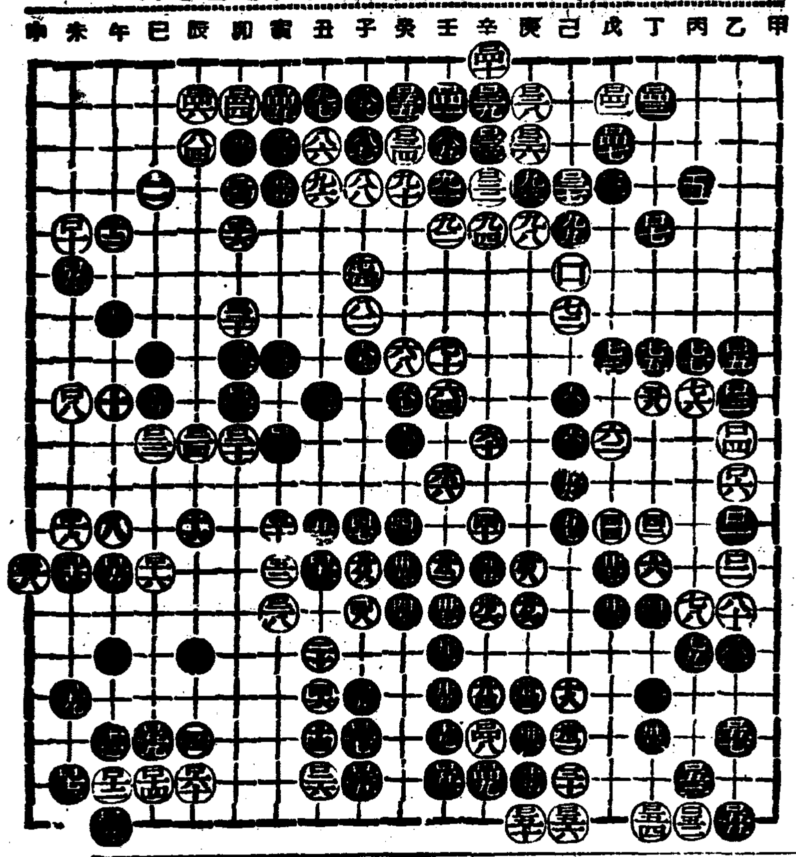
◀十二手圖▶

乙十象―丁十七 / 丁十四―丁十三 / 戊十兵―己十 / 戊十四―丁一 / 丙十象―戊七 / 丙四包―丙五 / 丁十士―丁九 / 乙二四―丁四 / 戊八包―戊十 / 己二四―戊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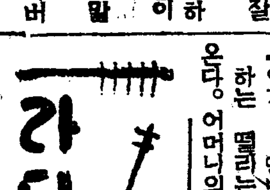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0＝

白 丁奎春
黑先 權秉郁



●百 寅의二
○百二 辰의二
●百三 戌의三
○百四 亥의十七
●百五 辛의十八
○百六 庚의十八
●百七 壬의十九
○百八 丙의十八
●百九 丙의十九
○百十 丁의十九
●百十一 乙의十九
○百十二 巳의十九
●百十三 乙의十七
○百十四 申의十三
●百十五 巳의十七
○百十六 辰의十八

라듸오



二十四日(火曜)

◇午後六時 이야기 尹石重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安寅植
◇同七時三〇分 朝鮮文化講座(一) 崔南善
◇同八時 歌曲 一、羽調兩擧 二、羽樂 三、環界樂 四、界樂 五、編 金美花 崔明珠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古談 [illegible] 車靑吾
◇同八時三〇分 (東) 管絃樂 新交響樂團 指揮 齋藤秀雄

第一放送
◇午後六時 (仙) 童謠風景
◇同六時二五分 (東) 靑年時間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同八時 歌謠曲
◇同八時二〇分 (東) 常磐津
◇同八時五〇分 (東) 管絃樂

三月二十五日(水曜)

◇午後〇時〇五分 映畵이야기『미모사館』柳寅晟
◇同三時一五分 通俗家庭講座(三) 金袂帯
◇同六時 피아노獨奏 一、即興幻想曲 쇼팡作曲 二、練習曲 쇼팡作品一五의九 三、헝가리舞曲第五 브람스作曲 四、화려한大圓舞曲 쇼팡作品十八 金炯璉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權寧浩
◇同七時三〇分 朝鮮文化講座(二) 崔南善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江上風月 二、唱劇調 春香歌中獄中歌 金素姬 鼓手 丁元燮
◇同八時三〇分 俗曲 一、山念佛 二、靑春歌 三、방아타령 四、양산도 五、도라지타령 六、어랑타령 七、노래가락 八、창부타령 奚琴 池龍九 短簫 崔壽成 細笛 高載德
◇同九時 古談 梨花兩枝 愼鼎範

第一放送
◇午前〇時三〇分(東)어머니의講座
◇午後〇時五分(大)映畵主題歌
◇同二時(東)婦人時間
◇同六時(大)童話劇
◇同七時三〇分(東)講演
◇同八時 琵琶

二十六日(木曜)

◇午後零時五分 (東) 吹奏樂 海軍軍樂隊 指揮樂長 內藤淸五
◇同一時十分 入學合格者發表(法專、醫專、高工、高農、高商)
◇同三時一五分 通俗家庭講座(四) 金袂帯
◇同六時 少女劇『帝冠의불』(全一幕―金泰爾作―(配役) 錦順 鄭貞愛 銀順(금순이동생)…鄭昺玉 눈(雪)(一)…劉根春 (雪)(二)…李恩順 나비…金麗玉 봄女神…金鮮姬 外多數 指揮 金相德 두루미會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世界名大學巡禮』 金興濟
◇同七時三〇分 朝鮮文化講座(三) 崔南善
◇同八時 (東) 管絃樂 新交響樂團 指揮山田耕作
◇同午後八時四五分 사설孔明歌 一、사설孔明歌 二、寧邊歌 三、긴난봉가 四、자진난봉가 五、개성난봉가 六、노래가락 白牧丹 柳開東
◇同十時(東)講話
◇同八時三〇分(東)筝曲

第一放送
◇午前十時三〇分 家庭講座
◇午後〇時五分 吹奏樂
◇同二時 어머니時間
◇同六時(東)어린이時間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 管絃樂
◇同八時四五分 小唄
◇同八時五五分 浪花節

※曆※
三月廿五日 (水)
三月建壬辰小 (三日)
丙午·水·參·平
●祭祀에宜함
●淸明四月五日(舊十四日)
●穀雨四月二十日(舊二十九日)

各學校入學試驗問題

京城法學專門學校

國科語(解釋)

一、左の文を平易に解釋せよ。
あまのすみかばかりあはれなるものはなし。いとたよりなき海べの風も たまらぬ 松かげなどに、たゞかりそめに澄りたるわらやどものさま、浪打寄せなばやがて流れも失せぬべう、いとはかなげに見ゆるを、繪にかきすさびたるなどは、なかなかにをかしきものから、さて住まひなば何心地かせましと、思ひやるだに心ぼそし。

二、左の文に於て、傍線の語に讀方を附し、全文を平易に解釋せよ。
芭蕉は一俳人なり。されど、五十年の生涯を自然の渇仰にさゝげて、あるは奧羽象潟の時雨に腸を絞り、あるは佐渡北海の荒波に魂を削りて、一樹の假の宿りにも、とく〳〵の苔結びもあへず、旅魂そゞろに枯野の風雲を追へりし 彼が姿を しのぶもの、誰か、その魂に繫られたる實の一字を否むべき。

三、左の語句の意義を記せよ。
(イ) 眉睡もの
(ロ) 橫槍
(ハ) 架空
(ニ) うどの大木
(ホ) 蛇蝎
(ヘ) 相伴

國語科(書取)

一、左の文に於て片假名の部分を適當なる漢字に改めよ。
あるがまゝの セキウ を ニヨジツ と クワン じて、思ふがまゝの ホシイマヽ を ラクヒ にした 西鶴は、サ ナ がら浩蕩たる タイコ であつた。岩間の雫 ハカゲ の露をも アハ せ タ ヒバ タ へたその末は、また幾條の タ となり クイリウ となつて文藝の野を ヌ ふて流れた。西鶴の在世から ボツゴ にかけて、幾多の モホウ シヤ、コウショウシヤ が現はれたが、その或者は蹣跚として彼の踏むだ路を タト り 或者は ハンカウ の聲をあげつゝもその コウジン を オフ たのである。

二、左の語句に於て片假名の部分を漢字に改めよ。
(一) 積弊を サンジヨ す。
(二) 誠意を ヒレキ す。
(三) 記事を ネツザウ す。
(四) リンキオウヘン。
(五) ライラクシヤダツ。
(六) イツチケツソク。

三、左の句に 適當の漢字を 當てよ。
(一) めいげつはざとうのつまのなくよかな
(二) やまはくれのはたそがれのすゝきかな

國語科(作文)

題。偶感(文體隨意)

英語科 (一)

(1) In the midsdst of the facile life of London and other great cities one constantly encounters people who express a fervid desire to escape from the fancied toils of their multitudinous environment. Sometimses they crave for nothing more than a cottage in the country, or yearn to sit beside a pond. Others dream of the immensities of the sea, or of wanderings amid deserts, or of a lonely sojourn among tall mountains.

(2) There is as much difference, said Johnson, between a lettered and an unlettered man as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and, in a way, it was no extravagance. Think merely how one's view of common things is affected by literary association.

英語科 (二)

(3) All that he had learned only made him feel how little he knew in comparison with what remained to be known.

(4) The great thing for us to keep in mind when a life storm breaks is that, no matter how violent, it is only temporary, and that behind the clouds the sun is always shining.

歷史科

一、明治維新の原因。
二、次の項目につき記せ。
(イ) 加羅
(ロ) 貞永式目
(ハ) 德政

梨花女子高等普通學校

國語科(其一) 第一志望

一、次の文を解釋しなさい。
人なつかしげに寄り來る鹿の春はわけてもやさしく、秋より冬にかけて哀音しきりに人の眠をさますも、奈良には缺くべからざる風情なるべし。

二、次の語句の意味を 書きなさい。
(1) 創造。＝ (5) 開墾。＝
(2) 繁雜。＝ (6) 從容。＝
(3) 人間業。＝ (7) 生意氣。＝
(4) 慈悲滿圓＝ (8) 輪出。

三、次の語句の片假名を漢字に直しなさい。
(1) マコトにオドロくべき■。
(2) ナゴリをオしむ。(3) コヅツミにてオクる。(4) ダンウにサイチユウ。(5) フのワのメイセイを博す。
(6) トクイの色にカガヤく。
(7) エイエンにイきる。
(8) ツユとキえる。(9) ミセにカザる。(10) チヨウシヨをハツキする。

四、次の語句を使つて短い文をつくりなさい。
(1) すら〜。
(2) いよ〜。
(3) なか〜。
(4) 今か今かと。
(5) 一心に。
(6) しきりに。

國語科 其二 第一志望

一、次の文中の片假名のところを漢字に直しなさい。
クリは耐久耐濕の性殊にイチヂルしきを以てカヲタのドダイ、デツドウのまくら木等の用にキヨウせられ、かしは最も堅くしてダンリヨクに富むが故に櫓・車・ウンドウキグの如きキヨウレツなる力を受くるものをセイサクするに適せり。

二、次の漢字に片假名をつけなさい。
(1) 風光。(2) 模倣。(3) 堅忍不拔。(4) 珠玉。(5) 努力。(6) 大事業。(7) 意見。(8) 訴訟。(9) 境內。(10) 傳書鳩。(11) 探檢船。(12) 平等。(13) 原料。(14) 美麗。(15) 珍重。(16) 藝術。(17) 貿易。(18) 奏樂。(19) 動揺。(20) 歡呼。

三、次の語句の意味を書きなさい。
(1) 目的を果す。
(2) 研究に餘念なし。
(3) 賢明な機敏な國民。
(4) 好機至れり。
(5) 激流岩をかむ。
(6) 無量の感に打たれる。
(7) あつぱれてがらを立てる。
(8) 富貴は意の如くならん。
(9) 着實溫厚なる人。
(10) 其の用途頗る廣し。

四、次の漢字を使つて熟語をつくりなさい。
(1) 信((4) 進(
(2) 愛((5) 同(
(3) 敬((6) 案(

國語科 其二 第二志望

一、左の御製について それへの問に答へなさい。
大空にそびえて見ゆるたかねにものぼればのぼる道はありけり
(1) のぼればのぼる道はありけりのわけをお書かきなさい。
(2) この御製は はつきりどんなことをおよみになつたのだと思ひますか。

二、次の語句の意味をわかり易く書きなさい。
(1) 一念こつた不斷の努力。
(2) 過ぎたるは及ばざるが如し
(3) 雨もいとはず暑さにもめげず。
(4) さながら風前の ともしびの如くである。
(5) 進退きはまつてうろ〜してゐる。
(6) 小利をむさぼつて大損を招く。
(7) 壯麗目をうばふばかり。
(8) きていろ〜思案したあげく 遂に心を決した。

三、次の漢字に讀假名をつけなさい。
(1) 行儀 (2) 梯子 (3) 隕鐵 (4) 物語 (5) 行爲 (6) 眞夜中 (7) 隔世 (8) 街路 (9) 指揮 (10) 頻繁 (11) 凱旋 (12) 未曾有 (13) 若者 (14) 名殘 (15) 神秘 (16) 行方 (17) 陰影 (18) 怪我 (19) 流石 (20) 明朗

四、次の漢字を使つて熟語をつくりなさい。
(1) 助。(2) 望。(3) 到。
(4) 殘。(5) 庭。(6) 氣。

國語科『其一』第二志望

國語科 其二

一、次の文章を解釋しなさい。
日頃の熱望こゝに達して男兒の面目これ過ぎるものはない。我等の歡喜は絕頂に達した。しかしこの歡喜と共にまた暗涙の浮ぶのを禁じ得なかつた。

三、次の文中片假名のところを漢字に書きなさい。
紺のキヤハンにワラヂかけ、カタは古ぼけたシンゲンブクロをわけてゐていかにもシサイありげである。朝な夕なになれてつく鐘のイチインにさへ、かほどまでケイケンの念をこめた古人のココロヅカひはイカにもトウトい。

三、次の語句の意味をかきなさい
(1) 絕體絕命(
(2) 自力更生(
(3) 百方奔走(
(4) 不滅の光(
(5) 千古未曾有(
(6) 眺望絕佳(
(7) 初一念を貫く(
(8) 目拔の大通(
(9) 費用を喜捨する(
(10) 天與の寶(

四、次の語を用ひて短文を書きなさい。
(1) ひたすら＝
(2) あくまで＝
(3) いかにも＝
(4) 心ゆくばかり＝
(5) 我ながら。
(6) 見るからに＝

算術第 一回考査

答ダケ書ケ。運算ハ、コノ答案紙ノ裏デヤヲテ見デモヨイ。

1. (イ) 10ノ0.7倍 (答)
(ロ) 69ノ$\frac{8}{1}$ (答)
2. $\frac{8}{8}$ト$\frac{8}{9}$トハドチラガ小サイカ (答)
3. 20錢ノ本ヲ 5分引デ買フト幾ラカ。 (答)
4. $\frac{1}{2}$ヲ掛ケテ30トナル數ハ何カ。 (答)
5. 次ノ數ノ中デ7デ割リ切レル 數ノ上ニ〇ヲツケヨ。
56, 14, 11, 22, 7, 77, 36
6. (イ) $2\times\frac{5}{8}$ (答)
(ロ) $0.5\div5\div\frac{5}{7}$ (答)
7. 9ノ1.2倍 (答)
8. 49ノ約數ニモナリ、28ノ約數ニモナル數一ツヲ書ケ (答)
9. 次ノ式ノ□ニ適當ナ數ヲ入レヨ
$\frac{3}{4}=\frac{□}{36}=\frac{21}{□}=\frac{15}{□}=\frac{□}{16}$
10. 次ノ分數ヲ 分母及分子ニ同ジ數ヲ掛ケテ、分母ガ60トナルヤウニセヨ。
$\frac{8}{15}$ (答) $\frac{5}{6}$ (答)
11. 1圓35錢ノ本ト 2圓75錢ノ本トヲ買ツテ5圓札ヲ出スト、幾ラノツリガ來ルカ。 (答)
12. 次ノ合計ヲ出セ。
二三・六八 九・一二 一〇・八四 計
13. 3m立方ノ體積ハ何程カ。(答)
14. 半徑2mノ圓ノ面積ハ何程カ。(答)
15. 今父ノ年齡ハ母ヨリ5歲多イ。10年後ニハ幾歲多イダラウ。 (答)
16.『ハイ』父ハ『イエ』ト 答ヘヨ。
(イ) 或職工ガ働イタ日數ト、得ル賃金トハ反比例スルカ。(答)
(ロ) 人ノ身長ト、ソノ人ノ年齡トハ正比例スルカ。 (答)
(ハ) 來年ハ閏年カ。 (答)
17. 4日ノ7日ニ對スル 反比ノ値ハ幾ラカ (答)
18. 乙ハ甲ノ2倍、丙ハ乙ノ二倍デアル。甲乙丙三數ノ連比ヲ書ケ。 (答)
19. 金10圓ヲ5:3:2ニナルヤウニ分ケヨ。 (答)
20. 0.24ト2.4%トハドチラガ大キイカ。 (答)
21. 日歩1錢トハ何ナコトカ (答)

算術第二回考査

1. 次ノ各式ノ運算ト答ヲ書ケ。
(イ) 25・673+3643・79
(ロ) 7858・5−314・1427
(ハ) 2449・49×1・73
(ニ) 19・4533÷0・87
2. 次ノ式ヲ計算セヨ。
(イ) $\left(\frac{1}{5}-\frac{1}{8}\right)\times\frac{5}{7}+\frac{1}{12}+\frac{1}{7}$
(ロ) $\{(9.37+1.24)\times0.7-6.4\}\div2.5$
3. 次ノ比例式ヲ解ケ。
(イ) $4\frac{1}{3}:3=x:18$
(ロ) $\left.\begin{matrix}3:5\\15:12\end{matrix}\right\}=6:x$
(續)ヅマキ
4、或本ヲ3日デ讀マウト思ツテ初日ニ全體ノ$\frac{2}{5}$ヲ讀ミ次ノ日ニハ初日ノ$\frac{4}{5}$ヲ讀ンダ。3日目ニハ全體ノ何分ノ何讀マネバナラヌカ。(式ト運算ト答ヲ書ケ)
5、幾ダースカノ鉛筆ヲ13人ノ子供ニ六本ヅヽ分ケルト6本ガ餘ル 鉛筆ハ 幾ダースアルカ。(式ト運算ト答ヲ書ケ)
6、男5人デ出來ル仕事ヲ女ハ13人デ出來ルト云フ。女一人デ26日カヽル仕事ヲ男2人デスルト幾日カヽルカ (式ト運算ト答ヲ書ケ)
7、某女子高等普通學校ノ入學志願者ハ400名デ5%ガ試驗當日缺席シ、出席者ノ30%ガ合格シタ、合格者ハ何名カ。(式ト運算ト答ヲ書ケ)

普成高等普通學校

國語考査問題普一

一、蜜柑の木が行儀よく並んでゐる。どれを見ても、枝といふ枝にはもう黃金色に色づいた實が鈴なりとなつてゐる。黑い程こい緣の葉の間から其の一つ一つが日の色にはえてくつきりと浮出てゐるのが見える。
1、行儀よくヲホカノコトバデイヒナサイ。(答)
2、鈴なりトハドウイフコトカ。(答)
3、黑いトハ何ガ黑ク見エルノカ (答)
4、其のトハ何ヲ指スカ。(答)、
5、くつきりとドウイフ意味カ。(答)

二、次ノ文中片假名ノ所ニ適當ナ漢字ヲ正シク記シナサイ
長蛇の如き我がレンタイは ネツセイなる國民のバンザイの聲に送られて、男しく前進した。次第に遠ざかるクツの音、蹄のヒビキは如何ばかり國民の耳に頼もしく聞えたであらう。
エヂソンは進んで新しい電燈の發明にジユウジした。彼のキ ダイの天才はこゝにもキ カンなくハツ キされて着着成功のキキに進んだ。

三、次ノ(例ノ如ク)文ノ意味ガヨクワカルヤウニ、上ノ語ト下ノ語トニ線ヲ引キナサイ
枚舉に	明讀した
訓示を	妨げる
敵島に	喜捨する
展望を	浴びせる
猛射を	遑あらず
	突進する

國語考査問題普二

(四) 次ノ本字ニヨミガナヲツケナイ。
玉砂利。懸跡は取片附ける。群衆。小包郵便。此の度の御儀。頂上。親類緣者。大仕掛。戰爭。

(五) 次ノ語句ノ意味ヲ 書キナサイ。
(1) 異境の地に永眠した。
(2) 道ならぬ貢獻。
(3) すげなく斷つて。
(4) みそなはしてよ天つち神。
(5) 消息。

國語考査問題小一

一、左ノ文ヲ讀ンデ次ノ五問ニ答ヘナサイ。
蜜柑の木が行儀よく並んでゐる。どれを見ても、枝といふ枝にはもう黃金色に色づいた實が鈴なりになつてゐる。黑い程こい緣の葉の間から、其の一つ一つが日の色にはえてくつきりと浮出てゐるのが見える。
1、行儀よくヲホカノコトバデイヒナサイ。(答)
2、鈴なりトハドウイフコトカ。(答)
3、黑いトハ何が黑ク見エルカ。(答)
4、其のトハ何ヲ指スカ。(答)
5、くつきりとトハドウイフ意味カ。(答)

二、ノ左文中片假名ノ所ニ適當ナ漢字ヲ正シク記シナサイ
火の熱は初め主として食物をテウリするに用ひたものゝやうであるが時代が進んでネンレウの種類が增すにつれて、火のヨウトもだん〳〵廣くなつて來た。木炭や石炭やガスの火はヘ ヤを暖めたり物を煮たり、重いキ カイを動かすのに大切なものになつてゐる。
エヂソンは進んで新らしい電燈の發明にジユウジした。彼のキダイの天才はこゝにもキ カンなくハツ キされて着着成功のキキに進んだ。

三、次ノ(例ノ如ク)文ノ意味ガヨクワカルヤウニ、上ノ語ト下ノ語トニ線ヲ引キナサイ
家庭の中の	勸誘する
疑 問を	帶びてゐる
相當に活氣を	頗る急なり
追擊すること	到着したり
私利によつて	讀月の如し
	解決した

實情에 맞지 안는 都市計畫을 論難

府電火力自家發電問題等으로 平壤府會(第四日)極緊張

【平壤】평양부회제사일은 이십삼일오후 한시삼십오분부터 계속개회되여 회려자가발전(火力自家發電)문제에대하여 갈론을박으로 서비하다가 금기아 이 문제만은 분리하여 부분적문제로 추후에토의하기로하고 전긔조사위원회의 보고안을 채결하엿다 그러나 김정호(金貞浩)의원은 도업(稻業)전긔문제조사위원장을 위시하여 상옥(桑谷)석외(石巖)등 종전에는 회려발전문제의 금선통이든 찬성자들이 돌연히 태도를 일변하여 회려발전을 불가성을 주장함은 부회의원의 체면으로 본든지 또는신림만부민에게 약속햇든것을 망각하는 불가해의 행동이라공격하고 다시수자를들어 보고서의 불온당한점을 여지업시 폭로한후 화려발전에 매진할것을 주장햇다 소화십일년도 평양부일반회계세입출예산론의에 들어가 한근조(韓根祖)송석찬(宋錫燦)김능수(金能秀)등 각의원은 차례로일어나 부당국의 대평양도시시설에 잇서서 평양부민의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정을모르는 부관계 내지 총독부관계자들에게 맛기어 발전도중에잇는 평양도시의 백년대계를 그릇치는점을 무수히 드러가지고 공격햇고 도로망이 정비되여잇는 신시가에만 치중하여 작년에 포장햇을뿐인 앵정(櫻町)도로의도로를 파괴하고 확장하면서 도대체 도로망이 불완전할뿐안이라 전연업는 구시가에 대하여서는 불문의태도임은 용인못할 행동이라고 통격햇다 제이인도교(第二人道橋)문제 전차환상선실시(電車環狀線實施)문제등특가지고 역시 조선인측각의원들의 맹렬한 질문과 경고가잇섯다 이리하여 예산안의 일독회(一讀會)는 끗맛고 오후다섯시쯤십분 산회햇다

北鎭普校의曙光

高秉烈氏千圓을爲始 增級基本金日復遝至

【北鎭】운산군 북진(雲山郡北鎭)공립보통학교는 년년히 지원아동의 반수도 수용못하는현상으로 일죽부터 학급증설운동을망하고잇섯든바 근년에 입학하려는 아동은 더욱 우심하야 이문제에 절대적 필요를느긴 동교학무위원(學務委員)제씨는 얼마전부터 삼학급증설비로 칠천오백원 운동장확장비로 삼천원 도합 만여원의 예산을세우고 이운동에 착수하엿는데 문제가문제니만큼 일반면민으로부터 자진하야 희사하는금액이 답지하야 불과십여일미만인 금일까지 벌서 오천여원에 달하야 압흐로 만여원이라는 거액도 용이할것으로 보는데 학무위원중의 한사람이 언가진제차로 상도할예정이라는데 우선신학기부터 일학급증설만이라도 실현을 보도록 노력중이라한다。

【北鎭】별항보도=북진공립보통학교 학급증설문제에 관하야는 선원을 요하는것이니만큼 일반면민의 열성이 지극하야 나도나도하고 희사하는금액이 답지하고잇는데 북진면 진동(鎭洞)광업가 고병렬(高秉烈)씨는 금일천원을 희사하엿스며 그외에도 거액을 희사한이가 다수한바지금까지의 그씨명과 금액은 다음과갓다한다

◆高秉烈 一千圓 朴春根 四百圓 朴昌根 劉俊慶 李炳植 白南濬 無名氏 各三百圓 吳利燮 白秉治 各二百五十圓 崔鍾濂 二百圓 其他

浦項永興學校 後援會役員會

【浦項】경북포항읍(浦項邑)의유일한 사립학교이오 이십수년의 긴역사를가진 조선초등교육계에 공헌이만흔 영흥학교(永興學校)는 포항에수교 장로파의 경영으로 오날에 이른것스나 경영난은 극도에달하야 폐교의 비운에 이른것을 본사포항지국장 김용주(金龍周)씨가인계 경영하게 되여 김용주씨의 일흠원칙사를 비롯하야 사회유지들의 재천희사로 이천수백원을 드려 교사 륙십여평을 증축하려는데 압흐로 사회유지들의 만흔 원조를 바라다하며 지난 이십일일 오후구시부터 김용규씨 경영인 삼일상회(三一商會)에서 후원회(後援會)의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가티 결의하엿다고 한다。

一、設立者變更의件
一、理事選擧의件
一、經常費調達의件
一、校舍增築의件

◆設立者兼校長 金龍周 ◆理事 鄭應三 崔秉咸 尹相奎 李東雨 金丙俊

當席義捐 金斗洞氏二百圓 尹秉氏一百圓 金東德氏一百圓 累計二千三百七十三圓五十錢

泗川公普校의 學校復活運動

【泗川】경남사천군정동 보통학교(正東公普校)와 축동보통학교(杻洞普校)는 아직록변계가실현되지못하여 당교사변을연생일부식을 사천보교에서 매년수용하여오든터인데 금년신학기에는 사천보교 오변급여 열학급뿐만 안이라 본교생도가만원이므로일절수용력이 업다고한다 그러나 일부 희망점이잇는것은 사천보교는 종래십이학급인데서 사변전에 입학생 감소로 말미암아 일학급이 축소되엿든까닭에 현재일학급을 수용할교실만은 버여잇스나 도당국으로서 다시 한학급부활의 언가가 문제이라한다 정동、축동、량보교졸업생을수용키위하야군학무당국에서는 얼마전부터 사천보교 십이학급을 종전과가티 부활하게달나는 인가원을 도당국에 제출으하엿스나 지금까지(三月二十二日)한등소식이업다하야 관계자는 초조중에잇는데 정동 축동량보교학부형들은 긔어인가되기를 요망하고잇다한다

極貧者救濟機關 授産地設置問題

釜山府會議에서論議

【釜山】부산부내에는 현재 그 아선상에서 방황하는 극빈자가 이천칠백여호로 인구 일만삼천여명에 달하고잇서서 이대로방임할수업는 사회문제임으로 일반부민들은 루년간 그구제책을 부당국에 요망하야왓든바 당국자는 단지 조사중이라는 모호한 변명으로 아무런 성의잇는 대책을 강구하지안어 부민의 비난이 자자하든중 지난 이십이일 부회의석상에서 김상홍(金相洪)의원으로 부터 부당국자는 예산편성에 잇서서 절대다수인 중산계급이하의 부민을 중요대상자로하지안코 소수인유산계급을 중요상대로한것을 지적한후 일반부민의 루년요망중인 극빈자의 구제방법에대하야는수산지구(授産地區) 설치의 급무를수자적으로 지적하야성의잇는답변을 구하얏는데 당국자는 모호한답변으로 변명에 노력하얏다 한다

六個普通學校에는 一學級式을增設

【伊川】강원도내 일면일교제는 신년도에 실현되도록 설치하여왓는바 기설보통학교에 잇서서는 학급수가 부족하야 매년 입학난을 부르지지고잇든현상으로서 예산관계상 현재도내의 보통학교의 요구에잇서학급증설은 목하의급무이지만 실현을 보지못하고잇든바 신년도에는 다음과가티 도내 륙개보통학교에 학급을증설하기로되야강원도내의 학무행정도 점차로충실하다고한다

郡名	校名	在來學級數	增設學級數
淮陽	蘭谷	四	五
通川	松田	四	五
三陟	松亭	七	八
三陟	龍興	四	五
蔚珍	梨花	五	六
華川	華南	二	三

一日中火災八回

【平壤】회재만키로는 동양제일이라는 평양에는 이십일일하로동안에 회재가 여덜번이나 일어나 소방대원을 괴롭게 하엿다 그호ー스가 마를사이가 업섯다 소방대의 활동으로 손해는만치 안으나 조선안을물론 일본내지 긔타다른나라 도시의인구에비하여 단연 제일위라한다

地方人事

▲安原耕雄氏(永興警察署警務主任) 新任人事次本報永興支局來訪

▲倉增多兵衛氏(龍泉警察署長)黃海線載寧龍泉轉任人事次本報龍泉支局來訪

▲師平七氏(店村驛長)龍泉驛轉任人事次本報龍泉支局來訪

▲嚴義燮氏(南原警察署司法主任)金堤警察署榮轉人事次本社南原支局來訪

異次頓의死 【125】

李光洙 作 金奎澤 畫

고함人소리가 점점 대궐에 갓가워진다。

『상감마마、상감마마』

하고 왕후는 곤히 잠드신 상감을 깨오셧다。

『상감마마 이 어이한 고함소리오? 북소리가 들리고 소리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하고 왕후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즈시엇다。

『어듸?』

하고 상감도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시엇다。

『선마로의 모반』

하고 상감은 가슴에 지피섯다。

이때에 저밋나인이 문밧게서、

『황송하오、황송하오』

하고 인ㅅ기척을 한다。

『웨 그러느냐、이리 들어라』

하고 상감은 그냥 자리에 누어게서엇다。무슨 일이 오든지 태연히 바드리라 하는드시。

지밀나인은 가만이 문을 열고 방에 들어와 부복하며、

『지금 선마로이손이、상감마마께 급히 사로일 말슴이 잇다하와 상감분부 기다리오』

하고 아로인다。

『선마로이손 혼자더냐』

하고 상감은 약간 화를 내시며 뭇는다。

『공목이손과 알공한아손도 등대하여잇소』

하고 나인이 아뢰인다。

『또 이 밤스중에 무슨 일이란말이냐。인제는 밤에 잠도 못자게 하려드는구나』

하고 상감이 일어나 안즈시매 왕후와 나인이 옷을 입혀드린다。

나인이 옷을 입혀들이면서、

『그러하온데 지금 어인 군사가 대궐을 에워싸고「이차돈을 내어주오、이차돈을 내어주오」하고 웨치고 잇사온데 무슨 일이온지』

하고 왕후의 눈을 잠깐 바라본다。

왕은 옷고롬을 다 매신 뒤에、

『이리 들라 하여라』

하고 관을 쓰시고 자리를 밀어노시고 평좌에 몸을 기대이신다。

나인이 물러나간지 얼마아니하야서、

『상감마마 선마로이손이옵니다』

하고 선마로가 문밧게 꿀어안는다。

『아오냐、이리 들어라』

하시는 상감의 말슴에 선마로는 나인이 열어주는 문으로 상감 계신 방으로 들어가고 공목과알공도 따라들어간다。

선마로와 공목과 알공은 상감 압해 업드러서 고개를 들지아니한다。

상감은 몸끄러워 세 사람이 업드린 모양을 바라보시고 이윽히 말슴이 업스시더니、

『선마로、고개를 들어라』

하고 분부하시엇다。

선마로는 고개를 들어서 상감을 바라본다。

『저 고함人소리가 웬소리냐』

하고 임금은 책망하는듯한 눈으로 선마로를 본다。

선마로는 두 손으로 방ㅅ바닥을집고 몸을압흐로 숙이고 눈만 들어서 임금을 치어다보고 알공과 공목은 선마로보다 한거름 떨어저서 역시 선마로모양으로 두손으로 방ㅅ바닥을집고 몸을 압흐로 숙이고 안젓다。

『그러올세、이몸이 밤ㅅ중에 상감마마를 놀라시게한것도 그일때문이오』

하고 잠깐 말을 멈춘다。

『무슨 일이란 말인고? 저고함이 무슨 일이란말인고? 어서 말을 하라。』

『예。황송하오 마는 이차돈을 내어주서야할줄로 아뢰오。오늘 이차돈이 노상에서 수만흔 백성을 모아가지고 해괴한 말을 한것이 빌미가 되어서 장안 백성이 모도 물 끌틋하오며 군사들이 벌떼와 가티 일어나서 이차돈을 죽이지아니하면―예 황송하오나 이차돈을 내어주시지아니하면 그냥 돌아가지는 아니한다고 하오。사세가 심히 급박하와서 다시 어찌할 도리가 업사오니 요승이차돈을 내어주시는일밧게는 만백성의 마음을 안돈시킬 도리는 업는줄로 아뢰오。』

선마로의 이말에 상감의 눈人섭이 우으로 번적 들린다。

皮膚病에는 단하나뿐인 テーム水

피부병良藥 데ー무水

從來의皮膚病藥은 化粧水와大同小異하야 効力이 薄하며使用함에 不便한곤적거리는 膏藥用도잇고도쓰리기만하야 効果가잇는듯하나 疑心스러운것이만엇스니、既往의皮膚藥의 不滿足과 缺陷을補充한것이 皮膚病良藥テーム水올시다 テーム水가左記皮膚諸症에對하야 適藥인것은 이미世上의定評잇소 때는 正히 皮膚病跳梁期、이尤甚한때皮膚病良藥 テーム水의 常用을 推奬합니다

●말은옴 ●옴부스럼진 ●무좀 ●옴 ●태독 ●부스럼 ●진물든데 ●가려운데 ●부릅 ●힌어루러기 ●버짐 ●癩風 ●疥癬 ●피풍 ●여드름 ●죽은깨 ●농가종 ●肝臟진물든데 ●옷올닌데 ●藥物皮膚炎 ●벼룩 ●모기、빈대、蚤蝨의刺傷

指圖에 使用하고 쓰리지안코 일부지안코 눈에안뙤고 냄새업시 用法이 簡單하며 無害하오

テーム水 賣價(卄錢、卅錢、五十錢、一圓、二圓……送料內地六錢)

(全國到處藥店에잇슴)

藥店에만이ㅎテーム水라指名하셔고사시지요

K.N.O

婦女子들도取扱容易 四十燭光六時間持續 夜間讀書裁縫에便利

明るい瓦斯ランプ

大阪市西區サツマ堀北町 製造元 近藤カーバイド商店 電話新町一五二一番

特別定價 宣傳期間 前金八十錢 送料元拂 振替大阪四四八一三番

現金前送文을謝絕前金拂込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動人學生團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脚氣에オリザニン

三共

脚氣에オリザニン을 服用하면 速하게治癒되는것은 多數醫學專門家의報告에徵하야疑心할餘地가업는것입니다……

オリザニン은 脚氣外에人體必要의營養素로서 여러가지에使用됩니다

(一) 熱性病者의營養保持에 食慾不振에、(二) 妊娠婦授乳婦에 姙産婦脚氣에、(三) 發育不全에、(四) 虛弱兒의健康增進發育增進에、(五) 스포ー츠맨의心體力保持에疲勞恢復에……

液、エキス、錠、末、注射液 各種 (說明書進呈)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副業에紙袋製造

近者新聞紙上에 여러가지職業이 宣傳되고 잇스나婦女子라도 손쉽게小資本으로 될수 잇는 깨끗한일로서 紙袋製造만큼 適當한것은 아마업슬줄안다。弊所主가 오래製袋商으로서의 經驗으로苦心考案한結果 製造機를完成한 新案特許二件을 獲得하엿스나 素人이라도 처음부터 製品에 好劣이 안나고 자못完全하게된 으로 我國唯一한 簡易製袋機로서자랑할수잇는것이다。現在弊所의專屬으로써 製造者를 急募中입으로 市內地方을 不問하고希望者는 오래營業하고確實한去來를 하는 當所에申込하라 로부터 未久에本業으로되야 生活安定을꾀하도록 懇切히希望한다。照會次第「製袋取引의表」를進呈합니다。

大阪市天王寺區堀越町四一番地(アベノ橋北一丁)

合名會社 江商製袋工業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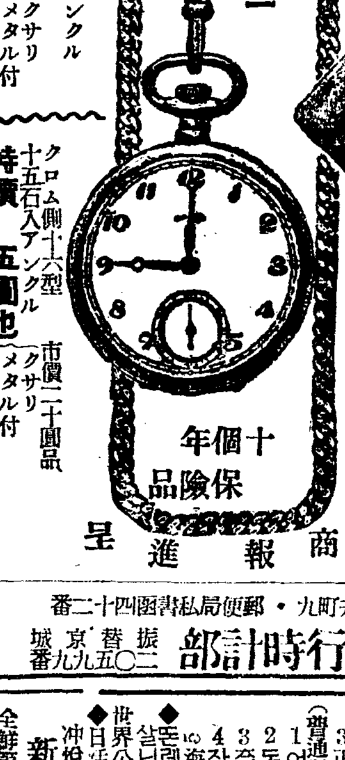
電話天王寺三六一七番 振替大阪一三八〇五。八一〇六七

十八金代用金側新春特別宣傳大賣出

賣行絕對天下의人氣는歐米洋行으로集中

◇時計를買入하려는분은 必히本洋行時計部로一次問議後에決定하시옵소서 今般斯界의大發明인 合理的實用品으로 十八金代用金側時計를 發賣以來全國各地에서 破天荒의注文과絕對好評이나날이늘어갑니다 아즉도歐米洋行의奉仕的事業을모르시는분에게左記의兩品을紹介하오니 一次注文하시와 널리宣傳을願합니다 先金注文送料負擔합니다

當當市價四分之一



十八金代用金側瑞西製十六型十五石入アンクル 市價二十五圓品 特價六圓七十錢 (クサリメタル付サック)

クロム側十六型十五石入アンクル 市價二十圓品 特價五圓也 (クサリメタル付サック)

九型腕卷十八金代用金側十石入實用アンクル 特價七圓也 クロム側十石入 特價六圓也

十個年保險品 商報進呈

新義州府雲井町九・郵便局私書函四十二番

振替京城二〇五九九番 歐米洋行時計部

眩氣에 はれやか! (하레야가)

極樂槍騎兵

(三月二十四日부터四日間) 每日三回(午前十時五〇分 午後一時半 六時半)

家庭映畫鑑賞週間

◆M、G、M、超特作名喜劇 珍優스타ー로ー렐 오리버하데이 主演

極樂槍騎兵

珍妙無類! 八十分間을우슴으로꼿을막게되십니다、참기막힌喜劇으로、全家族이安心하시고구경하실수잇슴니다

吉例漫畫大會

極彩色漫畫三篇 1강아지이야기 2구두장사녯날이야기 3正直한구두장사

(普通漫畫)五篇 1어릿광대 2독개비이야기 3奈巴倫 4작난감싸움 5海賊島

◆레스링選手權大試合 살니느냐?죽이느냐? 二卷

◆世界公認記錄肉彈血戰!慘!壯!

◆日活超特作映畫 江川宇禮雄主演 冲悅二、 新妻と居候

全鮮第一映畫殿堂 電光發 團成社

森永ミルクチヨコレート (멜크 쪼코레ー트)

輕快한마음에이거름

和暢한봄은

이한개로부터

5SEN 10SEN 20SEN

森永製菓株式會社

C—6

資生堂洗濯石鹼

衣服바탕을안버리고잘빨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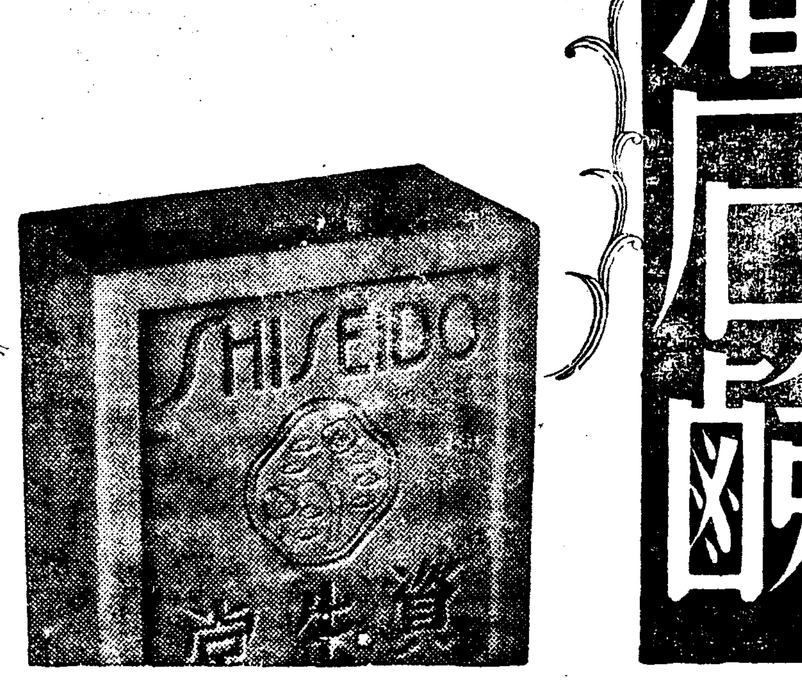
本品의特長

一、最高의品質 最低의價格

一、거품이 잘나오고

一、洗濯한뒤에 不快한내음안 남기고 쓰기조타

一、淨白力强하고 經濟的이다



東京銀座 資生堂

獨逸經濟의實情
自給自足遙遠
② 輸入防止失敗?

[illegible]에잇서 軍需目的의 輸入增加는 勿論[illegible] 外에 工業原料品 特히 鐵其他의 金屬輸入에도 顯著히나타낫스며 鑛物輸入에 限하야는 獨逸政府의 自給自足政策은 全然 失敗에도라갓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첫재 鐵鑛及鐵合金用金屬의輸入高를보면(以下單位千噸)

	一九三四年	一九三五年
鐵鑛	八、二六五	一四、〇六一
滿俺鑛	一、二二五	三九四
니켈	五	六
크롬鑛	一四	九
其他	二七	二七

等으로 例外가업시 增加를보이엇다 더욱 此等金屬의市價는相當히 高價임에도 不拘하고이가튼 輸入增加를 보게된것은 果然 獨逸이 얼마나 此等鑛物의必要를 늣기고 잇슴을알수잇스며 그市勢의昻騰은 實로 獨逸의需要增加로 因한것이다 이러한政府의 統制에도 不拘하고 그輸入高는 一九二九年까지 約三倍의 增加를 보이고잇다

그中에는 一九二九年 輸入高의二倍에 達한것도 二、三잇는現狀이다。

×

다음에 非鐵金屬의輸入에잇서서는 自給自足策의失敗를 一層顯著히 나타내고잇서 오히려 一九三三年에 比하야 三倍의多量에 達하는 非鐵金屬을 外國으로부터 供給을 밧고잇는 現狀을 보고잇다 더욱 獨逸政府는 此等 非鐵金屬을 可及的低價로 輸入함에 努力을 하는 一方 可及的 輸入品의 代用으로 國內產品使用을 獎勵하는同時에 만약이것이 不可能한때는 高價品代로 低價品의選擇을 獎勵하야왓다

그러고 또 될수잇는대로旣製品의 代身으로 原鑛을 輸入하도록 努力하는同時 원鑛의供給이 不充分할때는 精製代에 精鍊品을 輸入함과 가튼 方策을 取하엿다。그러나 어느方面으로 보든지 金屬統制政策에 依하야 큰影響은 밧지안핫다고 볼수 잇스니 非鐵金屬市場은 獨逸의 平常輸入額이다。이것은 다음과 가튼 獨逸 非鐵金屬의 數字로서 能히 그一端을 엿볼수가 잇다 (以下重位千噸)

	一九三四年	一九三五年
銅	一五六、四六六	一五二、〇六九
鉛	二六、六六〇	四六、〇一二
亞鉛(粗鉛)	一〇〇、四七一	一四五、三五〇
錫(粗鋼)	一五、四三一	一八、七五〇
錫	一〇、六三六	一一、一〇六
水銀	二七〇	四八一
錫鑛	三九八、六八〇	五四九、七一四
鉛鑛	一八〇、七三〇	一九一、三三五
亞鉛鑛	一五〇、一六〇	一九〇、三六〇

[illegible] 獨逸의 輸入統制政策이 國際市場에 조금도 影響을 주지아니하엿다는 一例로 「고무」를 들수가잇다 卽 獨逸은 一時依然고무市場에서 손을 끈키는事實도 잇서 그代身 「고무」代用品의研究에 努力하야 왓다 그러나 「고무」의 輸入量은 줄어드는것보다 도리어 다음과가티 漸增을 보히고잇다

(以下重位千噸)

一九三四年 六〇、二六二
一九三五年 六三、九〇八

×

그러고 同一한事實을 石油의輸入에서도 볼수가잇다。現下 獨逸의石油及石油製品需要高의六割五分은 아즉도 外國品의供給을 밧지안흐면 안될것이 그實情이다 그럼으로 이것이 今後 急激히 증가될 것이다

	一九三四年	一九三五年
原油	一三六、五二〇	一五四、七四四
石油	一、二三〇、一〇一	一、三六〇、〇〇〇
潤滑油	六二、五六〇	六七、四〇〇
輕油	三三七、五〇〇	二六四、三二〇

以上과가튼 輸入統計의 分析에 依하야 어느程度가 獨逸은 依然히 世界市場에 있어서 重要한 購買者의 地位를 失치안핫다는 一事이다 그러나 [illegible] 獨逸의 軍需工業의 現狀이 軍事的色彩를 띄고잇는 今日에 있어서 獨逸의 [illegible] 가 軍需로 復興하야 新興 和平(?)가 도라오지안는 限 結局 獨逸의 經濟的 自給自足은 到底히 어려울것이라는 觀測이잇다

―(終)―

新內閣統制經濟에 朝鮮도順應方針
局長會議席上 總監態度表明
新內閣產業界重大轉換

新內閣의成立後 產業經濟、財政政策에 一大革新을 할方針下에 產業經濟의統制와 增稅가 不遠實現될것으로 各方面이 그具體案의 出現을 注視하고잇는데 이러한 强力的新統制政策의出現에따라 事情이 日本內地와 달으다고보고잇는 朝鮮에서는 大資本을가진 企業者며 總督府方面에서도 最近年勃興되고잇는 工業에 壓迫을줄까하여 注目하고잇섯는데 그동안 中央政府의 政策에 沈默을 직히고잇든 總督府에서 二十四日午前十時局長會議席上에서 今井田總監으로부터 아래와가튼 態度를 表明하엿다 卽

新內閣은 그 成立을 보며 庶政刷新、財政 政策의 統制를 表明하엿다。이것은 從來의 自由主義 政治經濟策에서 統制主義로 一貫할을 意味하는것으로 볼것인데、그財政政策如何에 딸어 朝鮮側으로서도 그에順應토록 充分히 考慮할바이다 產業統制上으로도 統制主義를 體得하여 朝鮮產業經濟調查會도이方面에 方向을돌리어 그効果를 나타내이여야할 것이고 十二年度의 豫算에도 中央의 政策을 參酌하여 各方面으로 檢討할 바이잇슬것이다

라는 意味를말하엿다 今井田總監의말에는 增稅에 關해서는 言及치 안핫스나 中央에 應한財政策을 示現하여야 하겟다함에는 隱然히 그意味도 包含된것으로 볼것이어서 今後新內閣의 方針에따라 產業에 重大한 轉換이 잇지안흘까 注目되는 바이다。

增稅政策도 朝鮮에施行

如上의 總監聲明으로보아 日本內地에서의 增稅政策도 當然朝鮮에도 施行될것으로 統制主義의 朝鮮波及은 不可避의動向으로되엿다

米穀自管案에 備코저 三大調查에着手
經費廿三萬圓特議提出

米穀自治管理法案의 特別議會提出에 關聯하야 總督府에서는 明年度追加豫算으로 이에件한 朝鮮米의 移動 生產 現在의三大調查를 實施하고저 經費 二十三萬圓을 特別議會에 提出하기로되엿는데 그內容은 左와如하다

一、移動調查=道를 單位로하야 道廳經知(?) 仕向 仕入別 移出入別 調查를 行하기爲하야 專任職員을 各米穀檢查所에 配置함

二、生產高調查=道郡面을 單位로 豫作例에 依한 植付作況、收穫豫想、實收의 調查를 行하고저 專任調查員을 米穀統制職員과 함께 各道에 三名乃至 四名을 配置하고다시 指定員을設함

三、現在高調查=指定日一年을 九回로分하야 每月一日午前零時 現在로서 調查함

米移出不振으로 海運界閑散
雜貨移入만 旺盛

鎭南浦、新義州、南浦의 結氷은 今年에는 寒氣가 酷烈한關係로 例年보담은 解氷期가 約二十日間 느겨지게되야 南浦는 今月末頃부터 出入可能 新義州는 來月十日頃부터 出入可能하리라고 豫想되는데 이러므로 同方面 海運界의 農業材料其他 [illegible] 는 停頓하야 新義州에서 陸揚할것은 모다 大連에서 陸揚되며 鎭南浦에서 陸揚할것은 仁川에서 陸揚되야 荷取扱에 相當한 支障을 招來하고잇는데 仁川、群山、木浦、麗水各港도 今年은 日本內地로부터의 移入貨物은 雜貨로서 續續되어 來港함도 不拘하고 朝鮮米의 移出이 자못閑散하야 各船모다 외쪽짐으로되야 船會社의 採算에惡化를招來하고잇다

三億五千萬圓의 增稅案을決定
白紙態度로特議後審議開始
大衆課稅는極力回避

【東京電話同盟】大藏當局은 十二年度부터 實行할 總額 三億五千萬圓 程度의 增稅案을 決定한모양으로 具體的 要綱은 昔리는바에 依하면 過去의 幾多의 稅制整理에 對하야는 委員會에서 大體問題가된 增稅案은 別問題로하고 今後 廣田內閣의 施行할 增稅案에 對하야는 大藏當局에서도 아직 具體的成案이업고 現在 白紙狀態로 今後審議를 進行하리라한다 그러고 大藏當局으로서는 內閣의 政綱인 稅制整理의 根本方針에 關하야

馬場藏相의 意嚮을 基準하야 增稅案審議에 關한 今後의 方針을 着着協議하리라는데 그大要는 左와如하며 增稅問題는 特別議會後부터 開始하리라한다

一、增稅案審議는 全然 從來의 것을바리고 白紙의 態度로서 이에臨할

一、增稅案의 審議는 特別議會後부터 이를開始할

一、稅制整理에 對하야는 負擔의 均衡 徵稅의 期하야 稅源의 減額을 圖할

一、今後 增稅案의 審議는 稅制改革準備委員會를 通하야 調查局과의 聯絡을 取하야 [illegible]

極端의 變更을 行하지안을 準據하야 增稅案은 時代의 經濟情勢에 準據하기로하며 그主眼으로는 國民生活의 安定을 期하야 極力 大衆課稅를 回避하는 에 따를것은 勿論 어느程度

增稅・電力國營
書記官長談話形式으로
廿四日午後四時聲明發表

【東京電話同盟】政府는 最近 增稅問題 及 電力國營問題等에 對하야 各種의 報道가잇서 經濟界에 不安의念을주고잇슴에 鑑하야 二十四日의 閣議에서 協議한 結果 同日午後四時 藤沼書記官長談의 形式으로 此等報道의 訂正에 關한 非公式聲明을 發表하기로되엇다

公債買氣旺盛

【東京電話同盟】金融市場의公債買氣는 繼續하야旺盛한데 二十三日금市場에서는 翌日物八厘五毛의 高價를現出하엿슴에 不拘하고 또日銀所持新規公債 八百萬圓의 賣却이잇섯다 이에따라 新公債의賣却高는 十九日의發行日부터 僅僅三日間에 三千二百萬圓에 達하엿다 그結果 三月의 公債賣却總額은 新舊四分利 合計月初來 一億五千萬圓이나되어 이에米券 四千五百萬圓을 加하면 二億圓臺에 迫하고잇다

各港在米減
二十日現在狀況

二十日現在 朝鮮內各港 在米는 (單位石)

日本內地米	一、六五四
臺灣米	二、五九五
朝鮮米	一、六六四、九三七
合計	一、六六九、一八六

十日現在에 比하야 七萬九千六百七十七石의 減少며 前年同期에比하야 七萬四千九百九十石의 減少다

魚油統制의 細目協議會

魚油統制의 改訂에 隨伴하는其販賣行細目協議는 來四月八日부터 四日間에 亘하야 東京에서 協議會를行하기로되엇다 朝鮮으로부터는 各水產組合代表及總督府로부터 新井屬이 出席하는데 協議事項은 代金決濟方法輸送細目打合引渡方法等 商慣習에 關한것이다

米日爲替小高

【京城廿三日發同盟】今日의 米日爲替는 休日前日과 比하면 賣買二十八弗九十仙으로 一仙高이오 買二十八弗八十八仙으로 三仙高

▲東京爲替(二十四日)
對米 賣 廿八弗十六分十三 買 廿八弗十六分十三
對英 賣 一志二片卅一分 買 一志二片卅一分

▲大阪爲替(二十四日)
對米 賣 廿八弗八分七 買 廿八弗十六分十五
對英 賣 一志一片卅一 買 一志一片卅一

取引停止

(二月十八日)▲材木 京城府孝悌洞三〇二番地 細川信一▲材木 京城府雲泥洞九七

經濟界消息

○朝鮮郵船會社 朝鮮郵船에서는 增資로 僅定되얏슴으로 爲先 一隻의 社船을 新造하기로되여 今月內로 各造船所로부터 見積을 徵査한후에 注文하기로 되엿다 新造船은 三千五百噸級으로 目下의 噸當의 新造費는 一隻에 百四十萬圓乃至百五十萬圓을 要하리이다

○東拓堂子會社分工場=會寧의東拓의 堂子會社分工場은 來月中에 着工하야 來年上期中에는 完成할豫定인데 完成時에는 滿洲로부터 原材料를運搬하야 加工操業하기로 되여잇스며 이미滿洲國政府로부터 伐材權도 獲得하고잇다

○朝鮮製鍊會社 鎔鑛爐의火入을 終了하고 選鑛場도竣工되어目下建設中의것은 廻轉爐及電氣製鍊所인데 大槪五月中旬의吉日을卜하야 竣工式을 擧行하리라한다

○商號變更(二月十九日)▲鑛物賣買 京城府蓬萊町一丁目四八番地 朝日公司洪鍾翰

商況〔廿四日〕

株式 恐怖一巡 一息

前場少戻 昨日學期인 뒤를이어 今前場은 投物一巡으로 利喰戻가잇서 東新百二十三圓二十錢 大新七十三圓二十錢 日產六十八圓八十錢 朝新二十八圓四十錢 日產新二十圓丁 寄後다시軟調로大引

後場軟調 後場에 東新百二十三圓二十錢、大新七十三圓二十錢、日產六十九圓三十錢、朝取六十九圓丁、朝新二十八圓三十錢에 堅調寄後採合이다가 軟調裡에 大引

再昨年의 低價下廻
東新百二十圓割

三億圓增稅說、取引所稅十割增徵說로 昨日은 又復大慘落을演하야 特히 東新은後場에至하야

東京	百十九圓三十錢	
大阪	百十九圓五十錢	
當地	百十九圓四十錢	

으로百二十圓關門이깨어지고 再昨年十一月八日의 藤井財政恐慌時의 低價 東京百十九圓九十錢 大阪百二十圓三十錢을 下廻하야 昭和六年以來의 最低價를 示現하는 恐怖市勢이고저 百二十圓關門回復으로 止落되어可이어今朝前場은 利喰物等으로 東京百二十三圓四、當地百二十一、三圓으로採合이엇는바 表面理由는 增稅等을 내세우고 疑心暗鬼로 恐

實物前場取引

實物前場取引 乃至 大引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賣買高 二百六十枚)

甲 五分利	一〇一、六五
一回五分利	九九、九〇
二回四分利	一〇〇、〇〇
佛貨四分利	一、九九、九五

期米 少幅圈內 揉合

前場伸悩 昨後場阪地三十二圓四十九錢止와共히 二十九圓三十四錢에 揚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 三十二圓五十一錢인三丁反高를報하고 二十九圓三十七錢인三丁高로 揚寄始한後 阪地三節 四十三錢으로 五十一錢에 昂騰하엿다가 五十錢에 止揚寄을 伴하야 三十九錢까지 昂騰하엿다가 結局三十三錢으로 反落止揚하엿다

朝取期米取組內容

朝鮮의在米는 그만큼增加하며 말미어서 ... [illegible]

昨今正米市場
投物稍漸現出?

昨今清算市場은 一段低落을呈한 後稍히 下迯光景을 呈하고잇스며 正米市場의 近況을 綜合하여보면 春暖期의 稍漸接近함을 따라 產地出廻가 稍漸增加하는모양으로 朝鮮各港埠頭의 積滯米가 昨年同期보다 七萬餘石의增加를示하며 持米側은 大部分大地主와 中間商人의所有로서 昨今財界의不安으로 形勢를觀望하는

百圓征伐目標

東新百二十圓割로 昭和六年以來新低價를 示하게되엿스니까 百圓征伐이 問題化하게되엿다

東新百圓割은 昭和六年十一月로서 金輸出禁止斷行時의 市勢인바 지금의時勢는 無限不安恐怖時代이만큼 弱氣소리는 조금에도 못하게되엿다。

此邊一進一退
結局保勢而已

三月一日現在日本內地殘存米三百八十餘萬石의 激減도 一時的買氣를 助長하엿슬뿐으로 朝鮮의 出廻難 [illegible]

後場强保

後場은 二十九圓三十三錢에 同價始後 四節三十六錢 五節三十五錢으로 强保合이고 三十五錢에 止하다

市場六感

株

昨後場事竟 東新百二十圓割示現▲藤井財政恐慌時인 再昨年低價를 下廻코보니 百圓征伐소리가頗高 ▲內容은 白紙主義라하나 增稅斷行을 放送하는 馬場藏相을 미워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이러난다▲東新이 財界바로메타-로서 株界에 君臨하얏던까닭이 日本의經濟界가 資本主義經濟이엇기때문 ▲資本主義經濟가 統制經濟로 變革되는이때 東新의去勢는 當然之事 ▲高橋인푸레時代의東新 百七十八圓

米

卅一圓四、五十錢臺를中心으로 保合하든 當地先限은 卅錢臺로 그位置를 變更하야 또다시保合▲大體市勢는 高位置에잇는만큼 更伸할餘力이엇시 反히退步하는光景▲山種、田中眞、馬越等 三大軟派가 賣方針을 固執하는 그反面으로는 潮光一派가 抗戰하고잇다▲果然三對一의 勢力의對照가 何如할가? 勿論 買方의勢力이 생각을하야보는자라 市勢의强弱을 바구어잇는자라 限目이엇는者만이 成功할지저 弱하다고할수는잇스나 潮光은 地場側의一派이만큼 有力한便이면 두어 地場側이 떠나 모뚜워이 時代相을 洞察할 便을後援하게될지 此가注目處인데 春暖期의到來와 相俟하야 產地賣物이 稍漸現出하는 點으로보아서는 보아서는 軟派가 乘勢하엿다고할수도잇다 到來하는그點으로 大勢를 利用할것도잇고 減収期의 何如間不遠한 時日에 一場勝負를 決할모양 ▲그러데昨今의正米市勢는 持米側의恐怖的投物이엇지안흘모양인데 春暖期에 接近할사록 賣物이續出할것을 可期할수잇스며 市勢도 當分恢復키 難할것을可知

各地正米

▲買方=地場强氣側
▲賣方=株式側投 東京側地場

京城不動

定期不勢이나마 正租의 强調繼續으로 市勢下支氣味인九仁三等二十八圓七十錢四等二十八圓四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五十錢

仁川不變

解氷에 依한 出廻가 相當히 進捗되엇스나 低價賣物이업고 繼續하야 閑散이나마 市勢保合인 九仁三等二十八圓七十錢 四等二十八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丁

釜山保合

淸算의 不動과移出側의準備一巡으로 買氣不添이

大邱閑散

春暖期로 實物이極히 當用小口買가 程度에不過하얏다 角ㇷ三等二十八圓九十錢 四等二十八圓六十錢 一等白米十五圓二十四錢

群山軟調

株式低의 影響을 受하야 日本內地의買氣가 보이지안코 期米低와相俟하야 氣配가更히五錢引을인 姿ㇷ三等二十八圓九十錢 四等二十九圓七十五錢 一等白米十一圓七十錢

木浦不勢

環境不良과 期米不透明으로 買氣中絕이나마 低價에는 買募하고저함으로 市況이下澁인丸木三等二十八圓九十錢 四等二十八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堂島前場低迷

【大阪】產地正米事情은 其後好轉되엇스나 四日後에 迫到한納會에當限의 重壓을 支할수업고 場面은 閑散하야 今朝株式側의 投로보이는 上楠岡米의 賣物이잇고 地場一部의 處分急으로低迷狀態를呈하얏는데 地場强氣의 買組가잇서 一氣賣崩치안코 下澁氣味를 示하얏다 示場의主要賣買는如左하다

株 賣買 八 東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朝 米 取 株 光 一 仁川府海岸町三丁目 東益厦商店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金益證券株式會社 代表電話本局②五一八六番

土金 福 石金 高價買入 株式會社 石福鑛業 金·銀·白金·地金部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長電話本局四八五六

金融 廿四日

◆海外經濟◆ ◆日本銀行券◆ ◆朝鮮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金買入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京城穀物◆ ◆京城綿糸布市勢◆ ◆綿油冷價◆ ◆綿糟粕冷價◆ ◆시카코期米◆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廿四日

◆朝取短期◆ ◆大阪短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朝定代引日步◆ ◆東京短期取組◆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廿四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朝鮮內各地期米◆ ◆大阪期米◆ ◆大阪正米標準價◆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米市勢◆(單位錢) [illegible]

商品 廿四日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